6.15주간

주체90(2001)년

6.15Weekly 제9호 (8월 17~23일)



6.15주간 편집부

6.15주간

6.15WEEKLY

제9호 (8.17~23)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

오늘 우리들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역사적인 러시아방문에서 조국통일의 더욱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해 주신데 고무되어 7천만 겨레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적대행진에 힘차게 나서고 있는 격동적인 새 세기의 첫해에 8.15광복 56주년을 뜻 깊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8.15광복 56주년에 즈음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 주신 이북땅위에 강성대국을 세우시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노고를 바쳐 가시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충성의 한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8.15광복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위대한 전환의 새 시대를 열어 놓은 특기할 사변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40여년의 일제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민족을 구원해 주신 절세의 애국자이시고 전설적영웅이시며 조국광복의 은인이십니다.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조국과 겨레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20성상 항일의 불바다 만리, 눈보라 만리를 헤치시며 강도 일제를 때려부수고 조국광복의 새봄을 안아 오시였습니다.

새 조국건설의 우람찬 동음속에 조국 북반부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 아래 건당, 건국, 건군위업이 빛나게 실현되어 동방일각에 근로민중이 나라의 주인된 찬란한 새 조선이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강철의 영장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소한 조국북반부를 요람기에 병탄하려는 미제국주의의 무력침공을 탁월한 영군술과 주체적전법으로 단호히 물리치는 세계사적신화를 창조하시어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영웅조선의 기상을 온 세상에 높이 떨치시었습니다.

한 세대에 일제와 미제를 타승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류역사가 알지 못하는 민중중심의 사회주의건설의 초행길을 개척하시어 천지개벽을 이룩하고 자주, 자립, 자위로 승승장구하는 주체사회주의강국을 세우시었으며 조국과 민족이 끝없이 부강번영할 만년토대를 마련하시었습니다.

국토분열의 고통을 그 누구보다 가슴 아파 하시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다 바치시다가 순직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통일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 주시며 온 겨레와 우리 민중에게 조국통일의 선물을 안겨 주시려고 모든 심혈을 다 기울이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리혜안의 예지와 비범한 영도로 시대의 앞길을 열어 주시며 몸소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전개하시어 반제자주와 반전평화를 위한 20세기 인류자주화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었습니다.

희세의 정치대원로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백두밀림에서 시작된 주체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나가시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천재적인 사상이론과 탁월한 영도력, 고매한 덕망과 인품을 지니시고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활짝 꽃 피우시어 주체조선에 유례 없는 민족적융성과 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펼치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류사에 찾아 볼수 없는 수령영생위업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어 경애하는 수령님을 민족의 어버이, 주체의 태양으로 겨레와 인류의 심장속에 영생하도록 하여 주시고 주체조국과 민족의 역사가 태양의 존함과 더불어 영원히 흐르도록 하여 주시는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었습니다.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이 어려 있는 붉은기를 높이 드시고 세계정치사가 알지 못하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역사의 광풍을 짓부수고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연전연승의 개가를 높이 울리며 부강조국건설을 현명하게 영도하시어 조국북반부를 주체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시는 세기의 기적을 창조하시었습니다.

오늘 주체조선이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으로 위용 떨치며 미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고립압살책동과 온갖 시련과 난관을 걸음마다 격파분쇄하고 강성대국건설에서 세인을 끝없이 경탄시키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선군영도가 낳은 고귀한 결실입니다.

지금 세계정치계는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권위와 존엄을 끝없이 빛내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독특한 정치방식과 신비한 영도력에 매혹되여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따라 배우려는 것은 새 세기의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4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러시아 이따르타스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주신 명쾌한 대답은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자주정치, 자주적대외정책과 견결한 반제자주적입장을 다시금 내외에 높이 선언한 것으로 하여 세계의 폭풍 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의 역사적인 러시아방문은 조러친선관계발전에서 특기할 의의를 가지는 뜻 깊은 사변이며 주체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의 자주화위업실현에 커다란 공헌을 한 또 하나의 불멸의 업적으로 됩니다.

온 세계가 우러르는 21세기의 태양을 높이 모신 7천만 겨레의 가슴마다에는 지금 민족적자긍심으로 한껏 부풀어오르고 있으며 우리 남녘민중은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숭배열기로 더욱 설레이고 있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민족지상의 과제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8.15광복후 처음으로 남북수뇌분들의 역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시어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탄생시키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 놓으시는 불멸의 공적을 이룩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 없는 경모와 숭배열기가 대하로 세차게 굽이치는 속에 남과 북, 해외에서 ≪6.15~8.15민족통일촉진운동≫이 힘차게 벌어지고 7천만 겨레의 염원을 담은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제막식이 대성황리에 진행되게 된것은 위대한 장군님을 통일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었기 때문입니다.

참말로 경애하는 장군님은 겨레의 운명을 지켜 주시고 빛내어 주시는 민족의 영수이시고 인류의 자주화위업을 승리에로 향도하시는 걸출한 세계정치의 원로이시며 만민이 우러러 따르는 21세기의 태양이십니다.

온 겨레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도아래 통일조국을 우뚝 세우고 복락할 그날을 확신하고 있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싸워 나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은 곧 민족의 운명이시고 조국통일이시라는 철석의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6.15공동선언실현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21세기의 가까운 앞날에 조국통일을 기어이 실현하고야 말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녕과 행복은 남녘민중의 간절한 소원이며 부강조국건설의 확고한 담보입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각층 민중의 일치한 소망을 담아 민족의 태양이시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부디 영원한 청춘으로 젊어 계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체90 (2001)년 8월 15일
서울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

오늘 우리들은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러시아연방에 대한 공식방문을 성과리에 마치시고 조국에 돌아오신 감격적인 소식에 접하여 한없는 기쁨과 경모의 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새 세기의 첫 8.15광복절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역사적인 러시아연방방문으로 조국통일과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한결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축하를 드립니다.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영도로 마련된 조러 두 나라 수뇌분들의 뜻깊은 상봉과 회담, 모스크바선언의 채택은 오랜 전통을 가진 조러친선관계와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며 아시아 태평양지역과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거대한 기여를 한 역사적 이정표입니다.

새 세기의 첫해 정초부터 조국통일의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시고 세계자주화위업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여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번에 8월의 뜨거운 폭양과 전례없는 폭우 속을 헤치시며 수만리 장정의 자욱위에 조러친선의 화원을 꽃피워주시고 가시는 곳마다에서 새 세기를 대표하는 인류의 탁월한 영도자의 위인상을 만민의 심장 속에 깊이 심어주시었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필생의 사명으로 삼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서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을 통일할 것을 천명한 6.15공동선언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환영을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키시고 우리 겨레에게 새 세기의 가까운 앞날에 기어이 통일조국을 선물로 안겨주실 확고한 전망을 열어주시었습니다.

인류의 태양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21세기를 평화롭고 자유로운 세기로 빛내이시기 위하여 철저한 반제자주적 입장에서 현시대의 정세흐름을 바로 잡아주시었습니다.

주체의 기치 드높이 조국과 민족의 부강번영과 세계자주화위업실현을 위하여 순간의 휴식도 없이 위대한 헌신의 날과 날을 보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번 역사적인 러시아연방방문에 의하여 주체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 더욱더 유리한 국제적 환경이 마련되었으며 인류의 자주화위업실현의 앞길에 휘황한 전망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참말로 위대한 장군님은 불패의 자주정치로 겨레와 인류의 운명을 지켜주고 빛내어주시는 세계정치원로이시며 21세기의 찬란한 태양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선군혁명영도의 자욱을 아로새기시며 공장과 농촌, 군부대들을 현지지도하시던 그 길로 러시아연방을 방문하셨다는 소식에 접한 그 순간부터 장군님의 인자하신 태양의 모습을 그리며 부디 건강하신 몸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온 우리 남녘민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유라시아대륙을 누벼가시는 그 자욱자욱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조국통일을 위한 6.15남북공동선언관철을 위한 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여왔습니다.

지금 우리 남녘민중은 온 세계가 우러러 칭송하는 21세기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신 한없는 민족적 자긍심으로 끝없이 설레이고 있으며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를 충성의 일념으로 가슴불태우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자주정치, 선군정치로 주체조선의 위용과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계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계를 격동시키는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이번 러시아방문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고수하고 더욱 빛내어 나가기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들은 21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을 관철하여 가까운 앞날에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함으로써 이남민중의 역사적 숙원인 제2의 광복을 기어이 실현하여 7천만 겨레가 위대한 장군님의 치하에서 만복을 누릴 그날을 앞당겨올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어 조국통일은 확정적이며 민족만대의 번영은 찬란합니다.

겨레와 인류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안녕은 조국의 통일과 세계의 자주화실현의 확고한 담보입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각층 애국민중의 한결같은 소원을 담아 21세기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원한 청춘으로 젊어 계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체90(2001)년 8월 19일
서울

당면투쟁구호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기치아래 자주통일의 길로 가는 것은 대세의 흐름이다. 온 겨레가 이 성스러운 대행진에 발걸음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은 그 흐름을 되돌려 세우려고 광기를 부리고 있다.
6.15공동선언실행을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동족과의 대결만을 선동하면서 한반도의 정세를 냉전시대원점으로 돌려 놓으려하고 있다.
민족, 민중에게 화밖에 가져다 줄 것이 없는 이 우환단지가 감히 차기대권을 꿈꾸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회창을 그냥 둬두면 꿈에도 소원인 자주통일을 앞당길수 없고 민족공멸의 참화를 면할수 없게 된다.
각계 민중은 조국통일의 원쑤이고 국민의 공적인 이회창을 매장하고 제거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을 과감히 벌여야한다.
한국민족민주전선은 시국의 요청과 국민의 의지를 담아 당면투쟁구호를 발표한다.

자주, 민주, 통일의 적 이회창 제거투쟁의 포문을 열자!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6.15공동선언 결사반대하는 통일의 적 이회창을 매장하자!

반북대결고취하며 북침전쟁 꾀하는 이회창을 때려잡자!

주적론, 상호주의 웬말이냐 통일의 훼방꾼 이회창은 자폭하라!

이회창 그냥두면 남북화해 민족공조 안된다. 민족불화의 씨 이회창을 들어내자!

미국의 대북강경정책 추종하는 이회창을 제거하자!

국가보안법 고집하는 파쇼폭군 이회창을 처단하자!

청렴결백 간판들고 부정비리 일삼는 이회창을 심판하자!

이회창이 집권하면 동족상잔 다시온다. 대통령병자 이회창을 반대배격하자!

각계민중은 민족민중의 우환단지 이회창반대투쟁에 떨쳐나서자!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체 90 (2001)년 8월 13일
서울

김정일국방위원장 뿌찐대통령에게 감사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로씨야련방 대통령이신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 각하에게 18일 감사전문을 보내시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나는 귀국을 떠나면서 우리를 극진히 환대하여 준데 대하여 당신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태평양연안의 국경마을 하싼에서부터 서북단 싼크뜨－뻬쩨르부르그까지 로씨야의 전 령토구간에서 우리를 성의껏 맞이해 준 로씨야정부와 련방구들의 대통령전권대표들, 우리가 체류하거나 통과한 주와 시의 행정장관들, 친근한 로씨야주민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새 세기의 첫해에 진행된 우리들의 이번 만남은 조로 두 나라사이의 협조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력사적인 계기로 되였습니다.

세기와 세대를 넘어 이어 져 온 오래고도 긴밀한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는 이번 우리들사이에 합의된 정신에 따라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강력한 로씨야를 건설하기 위한 당신의 고귀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와 함께 로씨야인민들의 행복을 축원합니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로씨야공식방문을 끝마치신것과 관련한 공동보도

(평양 8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로씨야련방에 대한 공식방문을 성과적으로 끝마치신것과 관련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공동보도가 발표되였다.
공동보도전문은 다음과 같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로씨야련방에 대한 공식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8월 18일 조국에 돌아 오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20여일간 무려 5만여리에 달하는 먼 길을 오가시며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진행하시였으며 웨.웨.뿌찐대통령과의 상봉과 회담을 통하여 친분관계를 더욱 두터이하고 조로친선의 뉴대를 일층 강화하심으로써 조로친선관계사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의 이번 로씨야련방에 대한 방문은 웨.웨.뿌찐대통령의 특별한 관심속에 매우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으며 훌륭한 결실을 가져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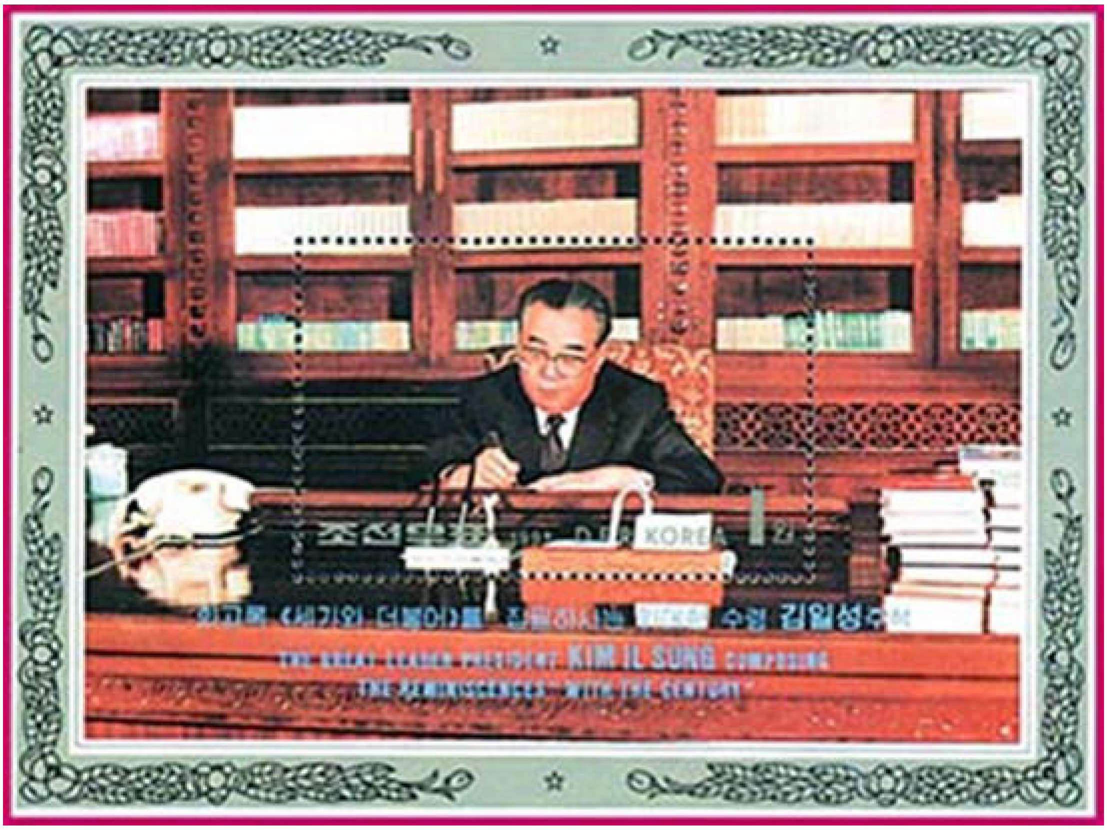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웨.웨.뿌찐대통령과 로씨야인민들이 높은 존경과 친근감, 두터운 신뢰의 정을 가지고 **김정일**령도자를 가장 열렬히 맞이하고 성의껏 환대하여 준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며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있다.

김정일령도자의 로씨야련방에 대한 력사적인 방문은 전통적인 조로친선을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으로서 조로친선의 년대기우에 빛나게 기록될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전체 군대와 인민이 **김정일**령도자의 현명한 령도밑에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과 건설을 힘 있게 다그침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을 앞당겨 실현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자주화를 위한 인류의 공동위업을 촉진하는데 보다 큰 기여를 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

손정도목사

세기와 더불어 2권



1991년 5월 미국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시에서 병리학의사로 일하던 손정도목사의 막내아들 손원태가 우리 해외동포영접부의 초청으로 부인(리유신)과 함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성화강 모래터에서 소년회원들과 류길학우회원들이 ≪땅≫편과 ≪바다≫편으로 갈라져서 군사놀이를 할 때 매번 내가 속한 편에 들겠다고 싱갱이질을 하던 십대의 연약한 소학생 손원태는 팔갑을 앞둔 백발로인이 되어 내 앞에 나타났다. 60풍상의 짓궂은 장난도 그의 백발 밑에 뚜렷이 새겨진 길림시절의 흔적을 지워버릴 수 없었다.

≪주석님!≫하고 부르며 나를 얼싸안는 손원태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있었다. 수만 마디의 언어가 집약되어 있는 눈물, 참으로 많은 사연을 담고 있은 눈물이었다. 허구한 세월 그리움으로 가슴을 에이면서도 우리는 어찌하여 백발이 다되어서야 만나게 되었는가, 무엇이 우리의 해후를 반세기 이상이나 끌어오게 하였던가.

60년이란 인간의 옹근 한생에 맞먹는 장구한 시간이다. 음속보다 더 빠른 속도를 가진 비행기들이 하늘을 씽씽 날고 있은 문명시대에 십대에 헤어졌던 사람들이 80이 다되어 만났다면 우리를 로년기에로 끊임없이 떠밀어온 그 시간의 루적은 너무나도 무정하고 공허한 것이 아닌가.

≪손선생은 어떻게 되어 머리가 그렇게 세었습니까?≫

나는 지난날의 소년회원이 아니라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학자를 대하는 공식적인 말투로 손원태에게 물었다.

손원태는 길림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약간 응석기가 비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김주석님을 만나뵙고싶어 마음을 쓰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길림시절에 김주석을 형님처럼 따르고 주석님도 자기를 동생처럼 사랑해왔는데 제발 선생이라는 호칭만은 쓰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면 옛날식으로 원태라고 합시다.≫

나는 웃으면서 말하였다.

서먹서먹하던 감정은 순간에 사라졌다. 우리는 흡사 길림시절로 되돌아간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평양의 응접실이 아니

라 길림의 옛 하숙집에서 손원태를 만나는 것 같은 생각까지 들었다. 길림시절에는 나도 손목사네 집에 자주 찾아갔고 손원태도 내가 하숙하는 집에 뻔질나게 찾아왔다.

차광수처럼 목을 늘 한쪽 옆으로 기울이고 다니던 체소하고 과묵한 소년, 그러나 일단 입을 열기만 하면 기지가 번쩍이는 롱과 유모아를 련발하여 상대방의 웃음을 자아내군 하던 제4성립학교 소학생 손원태, 그가 병리학의사가 되였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는 백발로인이 되였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였다. 새삼스럽게 머리를 잡아 휘두르는 격세지감, 길림에서 헤어진 것이 어제 같은데 그처럼 다감하던 소년시절은 어디로 가고 우리는 이렇게 로인이 되어 그 시절을 옛말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가.

나는 손원태와 함께 길림에서 보낸 나날들을 끝없이 회상하였다. 소년회와 관련한 생활은 두말할 것도 없고 거리 바닥에서 코흘리개들의 주머니를 털어내던 개눈깔사탕 장사까지도 우리의 화제거리가 되였다.

길림의 사탕장사들은 참말 능청스럽기도 했지. 사탕이 먹고 싶으면 함지에서 한 알 꺼내어 입안에 슬쩍 집어넣고 실컷 굴리다가 그걸 도루 뱉아서 팔군 했으니까. 아이들은 사탕을 사먹으면서도 그 사탕이 장사군의 입에 한 번씩 들어갔다가 나온 사탕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했거든.

우리는 이런 회상 앞에서 만가지 시름도 다 잊고 큰 소리로 웃군 하였다.

손원태는 서방에서 떠도는 소문과 달리 주석님께서 퍼그나 정정하시다고 하면서 나의 손을 허물없이 끌어당기더니 한참 동안 내 손금을 살펴보는 것이였다.

나는 그때 몹시 어리둥절했다.

≪명금이 이토록 좋으시니 필시 만년장수하시겠습니다. 대통령금까지 이렇게 뚜렷하니 나라의 수령으로 높은 존경을 받으시는 것이올시다.≫

손원태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나의 손금을 보아주는 사람도 난생 처음 보았고 사람의 손금가운데 대통령금이 있다는 말도 처음으로 들었다. 손원태가 나의 손금을 보아주면서 명금이 길다고 한 것은 나의 장수를 축수하는 심정의 표현일 것이며 그가 대통령금이 뚜렷하다고 한 것은 우리의 사업에 대한 지지의 표시일 것이다.

손원태는 한 나라의 수반과 회견한다는 공식적인 관념은 조금도 없이 나에게 이런 청까지 하였다.

≪주석님, 언제 나에게 ≪쨩즈궈즈≫를 사주시겠습니까? 길림에 있을 때 주석님과 함께 들던 ≪빙땅훌루≫도 먹고 싶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친형제간이 아니고서는 꺼내기 어려운 요구를 그가 하였기 때문이였다. 그는 정말로 나를 친형처럼 대하고 있는 것이였다. 손원태가 형이 없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불쑥 내 머리에 떠올랐다. 손원태의 형 손원일은 한때 남조선에서 국방부장관까지 하다가 몇해 전에 고인이 되였다.

내가 아무리 지성을 기울여 손원태를 대접한다고 하여도 손원일이 자기 동생을 보살펴준 그 사랑의 높이에까지는 도달할 수 없을 것이였다.

그러나 ≪쨩즈궈즈≫나 ≪빙땅훌루≫가 먹고 싶다는 그의 소원이야 풀어주지 못하겠는가. ≪쨩즈궈즈≫란 콩국과 기름에 튀긴 과배기 비슷한 중국음식이다. 나는 길림에 있을 때 손원태와 손인실을 데리고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그들에게 ≪쨩즈궈즈≫를 몇 번 사준 적이 있었다.

내가 ≪쨩즈궈즈≫를 사줄 때마다 어린 두 남매는 그것을 여간 맛있게 먹지 않았다. 손정도선생한테 진 신세를 생각하면 사실 돈을 다 털어서라도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사먹이고 싶은 것이 당시의 나의 심정이였다. 그러나 내 수중에 있는 돈은 학비도 변변히 댈 수 없는 보잘 것 없는 것이였다.

나는 손원태가 ≪쨩즈궈즈≫를 정말로 먹고 싶어 그런 청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쨩즈궈즈≫라는 한 마디의 말로 우리들이 친형제나 친남매간처럼 가깝게 지내던 길림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였을 뿐이다.

≪≪쨩즈궈즈≫가 먹고 싶다면 다음 번에 해주겠소.≫

손원태는 롱삼아 그런 말을 했지만 나는 그에게 정말로 ≪쨩즈궈즈≫를 해먹이고 싶은 생각이 났다.

다음 번이 아니라 당장에 만들어주고 싶은 욕망을 느끼였다. 그가 나에게 언제 ≪쨩즈궈즈≫를 사주시겠습니까 하고 허물없는 말을 한데서 나는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이틀 후 우리 료리사들이 만든 ≪쨩즈궈즈≫가 손원태부부에게 전달되였다. 조반 전에 그 음식을 받은 손원태는 김주석님덕분에 어린 시절에 즐겨먹던 ≪쨩즈궈즈≫를 먹게 되였다고 하면서 눈물을 삼키였다고 한다.

인정은 시간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시간의 힘앞에서는 모든 것이 퇴색하고 조락해버리지만 인정 하나만은 매장시켜버리지 못한다. 진실하게 맺어진 우정이나 사랑에는 로쇠라는 것도 있을 수 없고 변질이란 것도 있을 수 없다.

행로의 차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두절되였던 우리의 우정은 60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을 뛰어넘어 이렇게 다시 이어졌다.

우리는 오래간만에 만나 길림시절에 부르던 ≪사향가≫도 합창하였다. 놀라운 일은 나도 가사를 잊어버리지 않았고 그도 가사를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였다.

손원태는 민족을 위해서도 별로 해놓은 일이 없기 때문에 나를 볼 면목이 없다고 하였지만 그것은 겸손한 말이였다. 그는 베이징에서 대학을 다닐 때 학생회 감찰부장으로 학생운동에도 참가하였고 일화배척운동에도 뛰어든 애국청년이였다.

이것은 훗날 그를 나가사끼감옥으로 끌어가게 한 근거로 되였다.

한평생 정치와 담을 쌓고 살아온 그의 모습에는 길림시절의 그 깨끗하고 순진한 품격이 그대로 살아있었다. 내가 아니면 너라는 생존경쟁의 풍토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손원태는 우리가 해놓은 모든 일에 대하여 진심으로 되는 공감을 표시하였으며 우리 조국을 ≪아름답고 고상한 나라, 후손들을 위한 건설의 나라≫라고 격찬하였다. 나는 때늦게나마 손원태가 우리를 찾아와 길림시절을 회고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다행으로 생각하였다.

조국애와 민족애, 인간애로 넘치는 손원태의 모습은 그대로 손정도의 모습이었고 손인실의 모습이었다. 그는 나를 만날때마다 ≪주석님, 부디 늙지 말고 장수하십시오!≫하고 말하군 했다. 나의 건강을 충심으로 걱정해주는 그의 모습은 60년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보던 손정도목사의 모습을 방불케하였다.



조선민중은 누구나 조국통일에 모든 것을 복종시켜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주체 83(1994)년 4월 21일
재미교포 여류기자와 하신 담화



나는 선생과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여 매우 반갑습니다.

선생이 나의 생일 80돐때 조국을 방문하여 나를 만나고 돌아가서 쓴 접견기를 읽어보았습니다. 나는 선생이 접견기를 진실하게 잘 쓴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선생이 내가 몇해전이나 오늘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 세월이 흘렀으니 나도 이제는 늙었을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아픈데가 없고 아주 건강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상적으로 사업하고있습니다. 사람은 늙었다고하여 가만히 있지 말고 일정하게 일을 하여야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번 4.15를 계기로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미국 씨엔엔텔레비죤방송회사 기자들과 일본방송협회 기자들이 나와 회견한 소식을 여러 나라들에서 텔레비죤으로 방영하였는데 나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세계의 많은 벗들이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선생도 알고있는바와 같이 우리 나라와 미국사이에는 오랫동안 불미스러운 관계가 지속되고있습니다. 우리는 조미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관계가 청산되고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것은 조선과 미국 두 나라 인민들의 공통된 념원이며 현시대의 흐름에도 맞는것입니다. 미국이 우리와의 대결관념을 버리고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원칙에서 우리 나라와의 관계를 정상화할 용의를 가지고 나온다면 조미관계문제는 얼마든지 순조롭게 해결될수 있을것입니다.

지난 1월에 미국에서 빌리 그라함목사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는데 그때 그는 미국이 우리와 사이좋게 지내려고 한다는 미국대통령의 구두메쎄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우리도 조미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앞으로 적당한 시기에 미국대통령과 만나 두 나라사이의 관계개선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나눌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빌리 그라함목사가 미국에 돌아가서 조미관계개선문제와 관련하여 내가 한 말을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미국이 우리에게 나쁘게 행동할 조건이 없습니다. 미국이 우리와 힘으로 겨루어보려고 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미국이 우리와 힘으로 겨루어보려고 하다가 실패하면 세상사람들앞에서 체면이나 깎이웠지 얻을것이 없습니다. 미국이 우리 나라와의 관계를 개선하면 아세아에서 자기의 명분을 세우는데도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과 제3단계의 회담을 하려고 하는데 회담을 통하여 조미관계가 개선되면 우리의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겨 실현할수 있을것입니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미국사람들에게 많이 달려있습니다. 남조선은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이며 남조선집권자는 미국사람들이 하라는대로 움직이는 하수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난날 일제는 조선에 총독부를 두고 야만적인 무단통치를 실시하였다면 오늘 미국은 남조선에서 저들의 앞잡이를 내세우고 그를 얼리기도 하고 위협도 하면서 신식민지통치를 실시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자주성도 실권도 없는 남조선당국자들과만 대화를 해서는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없습니다.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려면 남조선당국자들을 좌지우지하는 실제적인 주인인 미국사람들과 대화를 하여 조미관계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조미관계가 개선되여 두 나라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게 되면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순조롭게 해결될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남조선에서 물러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해서든지 남조선에 그냥 남아있으려고 하는것은 우리를 견제하자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남조선을 저들의 군사기지로 리용하여 중국과 일본, 로씨야를 견제하자는데 있습니다. 미국사람들은 구라파에서는 독일과 프랑스를 경쟁자로 보고있고 아세아에서는 중국과 일본, 로씨야를 위험한 경쟁대상으로 보고있는데 조선반도가 중국, 일본, 로씨야와 린접하고있기때문에 남조선을 매우 중시하고있습니다. 물론 미국사람들이 남조선에 틀고앉아서 경제적리득도 좀 얻자고 하지만 그보다도 남조선을 군사기지로 리용하여 중국과 일본, 로씨야를 견제하는데 더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사람들은 남조선을 맛있는 비계덩어리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물고 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조미관계를 개선하자면 무엇보다도 미국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 잘 알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 잘 모르고있는데로부터 여러모로 오해하고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 누구에게 해되는 일을 하지 않으며 남의것을 그대로 본따거나 남이 하자는대로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민은 지난 기간 일제와 미제를 반대하는 전쟁도 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간고한 투쟁도 하는 과정에 실지 체험을 통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의 신념에 따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제일 좋다는것을 알고있기때문에 남에게 맹종맹동하지 않습니다. 미국사람들은 우리 나라가 그 어떤 외세에도 추종하지 않는 당당한 자주독립국가이라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나라가 비록 분렬되여있지만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되여 있고 모든 문제를 우리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고있기때문에 그 누구도 감히 우리에게 이래라저래라 하지 못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 나라처럼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으로 나가는 나라는 얼마없습니다. 미국사람들이 진실로 자주와 민주를 바란다면 우리와 사귀지 못할 조건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나라는 북과 남이 통일되여도 그 어떤 대국에 예속된 위성국이 아니라 자주적이며 쁠럭불가담적인 중립국가로 될것입니다. 지금 큰 나라들이 조선반도를 탐내며 노리고있는 조건에서 통일된 조선은 오지리나 스위스처럼 중립국가로 되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 나라가 통일된 다음 자주적이며 쁠럭불가담적인 중립국가로 되면 걱정할것이 없습니다.

미국사람들이 우리의 조국통일방침에 대해서도 옳은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적화통일≫을 하려고 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우리를 헐뜯고있는데 우리는 결코 남조선을 ≪적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련방제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하자는것이지 남조선을 사회주의화하자는것이 아닙니다. 남조선에서 사회주의를 실시하자면 남조선사람들이 그것을 자기의 리념으로 받아들이고 지지해나서야지 억지로 내리먹이는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련방제방식으로 조국을 통일한 다음에도 남조선에서 자본주의를 하든, 반자본주의를 하든 상관하지 않을것입니다. 우리는 남조선의 자본가들을 덮어놓고 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전에 문익환목사가 평양에 왔을 때 그에게 우리의 련방제 조국통일방안에 대하여 말해주었더니 그는 련방제를 찬



성한다고 하면서 련방제를 실시하면 남조선의 자본가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우리는 남조선의 모든 자본가들을 다 반대하는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고 인민들을 못살게 구는 악덕자본가만 반대한다, 지금 남조선청년학생들이 악덕자본가를 타도하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투쟁하고 있는데 그것은 좋은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악덕자본가만 반대하지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의 발전을 바라는 민족자본가는 배척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해방직후부터 일관하게 견지해오는 립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해방후 평양에 개선하여 한 연설내용을 말해주었습니다.

내가 1945년 10월 14일에 개선연설을 하려고 평양공설운동장에 나가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나의 연설을 듣겠다고 모여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운동장바닥은 물론, 모란봉에까지 사람들이 하얗게 모여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주석단에 올라가 원고없이 연설하면서 전민족이 단결하여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새 조국 건설에 이바지할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내가 문익환목사에게 그때 연설한 내용을 우리 사람들이 화강석에 새겨 개선문옆에 세웠는데 우리는 앞으로도 이 립장을 견지하여나갈것이라고 하자 그는 남조선의 자본가문제 때문에 신경을 써왔는데 이제는 모든것이 명백하게 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남조선에 사회주의를 내리먹이면 거기에 자본을 투자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을것입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카나다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들이 남조선에 적지 않은 자본을 투자하였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련방제를 실시한 다음 남조선에 사회주의를 내리먹이면 거기에 자본을 투자한 나라들이 우리의 적수로 될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남조선의 경제는 다른 나라의 자본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적민족경제로 발전하여야 합니다. 지금 남조선경제는 다른 나라의 자본에 의존하고있기때문에 자립성이 없고 불안정합니다. 앞으로 남조선에서 다른 나라에 진 빚을 다 물어주고 경제를 자체의 민족자본에 의거하여 발전시켜나가게 되면 다른 나라들이 자기의 자본을 철수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때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려야 하는것만큼 우리는 련방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남조선에 있는 다른 나라 자본을 그대로 허용하려고 합니다. 남조선사람들도 같은 조선민족인것만큼 우리의 립장은 그들이 자본주의를 하든, 반자본주의를 하든 관계없이 하나로 통일된 조국에서 천년이고 만년이고 같이 살아나가자는것입니다.

우리가 련방제 조국통일을 주장하지만 지금 당장 남조선에 있는 미군을 다 몰아내자는것은 아닙니다. 물론 북과 남사이에 화해와 불가침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고 우리가 남조선을 ≪적화≫하려 하지 않는다는것을 명백히 천명한 조건에서 미군이 남조선에 남아있을 명분이 없게 된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이 중국이나 일본, 로씨야를 견제하기 위하여 남조선에서 물러가려 하지않는데 우리는 미군이 남조선에서 당장 철수하지 않겠으면 단계적으로라도 철수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앞으로 북과 남이 화해를 하고 군대를 줄이면 그에 따라 남조선에 주둔하고있는 미군도 단계적으로 철수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이 불가침문제를 합의하고 서로 싸움을 하지 않을것을 약속한것만큼 많은 군대를 그대로 둘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북과 남의 군대를 점차적으로 줄여 각각 한 10만명 정도로 유지하면 됩니다. 남조선에 주둔하고있는 미군도 북과 남의 군대가 각각 10만명 정도로 축소될 때에는 완전히 철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남조선의 력대통치자들은 북과 남의 군대를 각각 10만명 정도로 줄이자는 우리의 제의를 외면하고 군비를 계속 확장하였으며 미군의 남조선주둔을 애걸하였습니다.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북과 남이 화해를 하면 우리와 남조선이 제각기 동맹국을 가질 필요가 더는 없게 될것입니다. 그때에 가서는 우리도 중국과 로씨야와 맺은 동맹관계를 페기하고 남조선도 미국과 맺은 동맹관계를 페기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기간 조국통일을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는 남조선에서 ≪문민정권≫이 출현한 이후 남조선당국자들이 어떤 립장과 태도로 나오는가 하는데 대하여 깊은 주의를 돌렸습니다. 현 남조선집권자는 취임연설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수 없다고 하면서 나와 백두산에서 만나도 좋고 한나산에서 만나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남조선집권자가 민족을 동맹국보다 우위에 놓는다는 연설을 하였기때문에 그와 손을 잡을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작성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계승발전시킨 전민족적인 통일강령입니다.

우리는 항일혁명을 시작한 첫 시기부터 모든 반일애국력량과의 통일단결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나는 1932년 4월 25일에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고 안도현성에서 5.1절을 맞으며 열병행진을 한 다음 통화에 있는 량세봉독립군부대와의 통일전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만으로 진출하였습니다. 그때 길림육문중학교에서 교원을 하다가 우사령부대에 들어간 류본초도 당취오자위군과 합작을 실현하기 위하여 통화에 갔댔습니다. 나는 량세봉을 찾아가서 반일인민유격대와 독립군이 서로 힘을 합쳐 일제와 싸우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량세봉독립군부대와의 통일전선은 일제 밀정놈의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그후에도 독립군부대들과의 통일전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였지만 1936년까지는 큰 성과를 이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민족대단결을 실현할수 있는 강령을 내놓아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1936년에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를 창립하고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은 로동자, 농민은 물론, 량심적인 민족자본가와 종교인을 비롯한 모든 반일애국력량을 조국광복의 기치아래 하나로 굳게 묶어세울수 있게 한 민족대단결강령이였습니다. 우리는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 기초하여 독립군부대들과도 단결하고 여러 민족주의단체 성원들과도 단결하고 천도교인을 비롯한 종교인들과도 단결하여 일제와 싸워이겼습니다.

나는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발표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정무원총리가 하는 보고에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수 없다고 한 남조선집권자의 말을 한대목 넣도록 하였습니다. 그후에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남조선의 각계인사들에게 편지로 보내도록 하였으며 남측에 북남최고위급 특사교환도 제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조선집권자는 미국사람들과 한짝이 되여 핵무기를 가진 사람과는 악수할수 없다고 하면서



북남최고위급 특사를 교환할데 대한 우리의 제의마저 반대하였습니다.

핵무기에 대한 말이 나온김에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에게는 핵무기를 만들 의사도 능력도 없으며 핵무기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이 수천수만개의 핵무기를 가지고있는데 우리가 몇개의 핵무기를 만들어서야 무엇하겠습니까. 미국은 비행기와 함선, 대륙간탄도로케트를 비롯한 핵운반수단들을 가지고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런것도 없습니다. 더우기 우리에게는 핵무기를 만들어 동족을 살해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남조선집권자가 핵무기를 가진 사람과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우리의 북남최고위급 특사교환제의를 거부해나선것은 결국 조국통일을 하지 않겠다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현 남조선집권자는 ≪문민정권≫을 표방하지만 이전 군부독재자들과 마찬가지로 미군유지비까지 대주면서 미군의 남조선영구주둔을 애걸하고있습니다. 이런것을 보면 그에게 초보적인 민족적량심도 자주성도 없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선생이 한때 민족을 배반하였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 용납하겠는가고 물었는데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나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에서 지난날 민족을 배반하였던 사람도 과거를 뉘우치고 애국의 길에 나서면 관용으로 대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앞에 나서고있는 최대의 과업은 조국통일을 실현하는것입니다. 조선민족이라면 누구나 다 조국통일에 모든것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 누구도 조국통일을 외면하고 자기의 리익만을 추구해서는 안됩니다. 현 남조선집권자도 ≪대통령≫만 해먹을 생각을 하지 말고 조국을 통일할 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언제인가 누가 나에게 조국이 통일된 다음에 대통령을 하는것이 어떤가고 하기에 지금 단계에서는 조국통일이 중요하지 누가 어떤 직위를 차지하는가 하는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한강토우에서 화목하게 살아오면서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여온 용감하고 슬기로운 단일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갈라져 살수 없으며 통일된 조국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최근에 우리 력사학자들이 우리 나라의 력사를 옳게 해명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습니다.

나는 우리 력사학자들과 해당 부문 일군들에게 단군에 대한 연구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단군릉을 발굴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나라 고고학자들이 평양시 강동군에서 단군릉을 발굴하고 거기에서 단군과 그의 안해의 유골을 찾아냈습니다. 전문가들이 단군의 유골을 검증한데 의하면 그것이 5,011년전의것이라는것이 확증되였습니다. 단군의 유골에 대한 년대확증은 세계적으로 공인된 최신형 측정기구와 검측방법으로 하였기 때문에 과학적입니다.

단군릉을 발굴하고 단군유골의 년대를 과학적으로 확증한것은 우리 나라 력사연구에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지금까지 신화적인 존재로 전하여오던 단군이 실재한 인물로 고증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단일민족이며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슬기로운 민족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자랑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단군이 5,000년전에 고조선을 세운것이 엄연한 력사적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고조선의 건국시조와 건국년대가 외곡되여온것은 전적으로 일제의 조선민족말살정책과 봉건시대사가들의 사대주의의 후과입니다. 지난날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동조동근≫을 부르짖으면서 우리 나라의 건국년대가 일본의 건국년대보다 뒤떨어졌다는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단군의 력사를 전면적으로 말살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단군의 유골이 발굴되고 그 년대가 과학적으로 밝혀짐으로써 우리 민족이 동방에서 처음으로 나라를 세운 슬기로운 민족이라는데 대하여 누구도 감히 시비할수 없게 되였습니다.

나는 고구려의 력사도 옳게 해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고구려는 광활한 령토를 차지한 동방천년강국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력사학자들은 고구려의 력사에 대하여 옳게 리해하지 못하고있었습니다. 몇해전에 동명왕릉을 개건할때 한 력사학자를 만나 고구려력사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는데 그도 고구려의 력사에 대하여 잘못 리해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력사에 대하여 다시 잘 연구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후에 우리 력사학자들이 고구려의 력사에 대하여서도 바로 해명하였습니다.

그전에 우리 나라 삼국시기의 력사에 신라에 의하여 삼국이 통일된것으로 되여있었는데 **김정일**동지가 종합대학시절에 그 부당성을 론증하고 바로잡아놓았습니다. 남조선에서 박정희때에 ≪신라식통일≫을 떠들었는데 그것은 큰 나라들을 등에 업고 우리 공화국을 먹어보려는 사대매국노들의 흉악한 속심을 그대로 드러낸것이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력사기록을 보면 시조새의 화석이 독일에서 발굴된것으로 알려져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도 시조새의 화석이 발굴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발굴된 시조새의 화석을 검증한데 의하면 그것이 1억 5,000만년전에 산것이라고 합니다. 나는 우리 나라에서 시조새의 화석이 발굴되였다는 보고를 받고 너무 기뻐서 그 시조새를 ≪조선시조새≫라고 부르도록 하였습니다. 이런것을보면 우리 나라는 인류의 발상지일뿐아니라 조류의 발상지라고도 말할수 있습니다.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우리 민족은 일찌기 금속활자와 거북선을 만들고 첨성대를 일떠세웠습니다. 북과 남이 하나로 통일되면 우리 나라는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강력하고 존엄있는 자주독립국가로 될것이며 단군의 후예들인 7천만 우리 겨레는 삼천리금수강산에서 자자손손 복락을 누리며 살게될것입니다.

최근에 중국의 연변에서 살고있는 조선사람들이 나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잘 썼습니다. 그 책에는 내가 22살때에 라자구에서 큰 전투를 벌려 승리하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라자구전투에 대한 내용은 그곳에서 살고있는 늙은이들의 말을 듣고 썼을것입니다. 내가 22살때에 라자구전투를 조직하였습니다.

선생이 내가 쓴 회고록 제4권을 감동깊이 읽었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회고록 제5권은 출판중에 있고 제6권은 집필중에 있습니다. 회고록 제6권에서 보천보전투에 대해서도 서술하고있는데 5.1절까지 집필을 끝내자고 합니다.

나는 요즘 회고록도 집필하고 외국손님들도 많이 만나다보니 늘 긴장하게 시간을 보내고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나에게 너무 무리하게 일하지 말라고 권고하고있습니다.

선생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하였는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문필활동을 하기 바랍니다.

통일의지의 숭고한 체현자

구국의 소리 8월 15-16일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유훈을 지켜 가까운 앞날에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시려는 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확고한 의지이신데요. 장군님의 통일의지에 의해 역사적인 평양상봉이 마련되었고 6.15남북공동선언이 세상에 나올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통일의지의 숭고한 체현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15광복절 56주기를 맞아 삼천리강산은 겨레의 통일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민족의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려는 우리 민족의 거세찬 통일대행진의 진두에는 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계십니다.

김정일영도자님은 반세기여에 걸치는 분단의 역사를 끝장내고 통일의 새아침을 안아오실 숭고한 통일의지의 체현자이며 통일의 위대한 태양이십니다. 한평생 민족의 통일위업을 위해 모든 걸 다바쳐 오신 **김일성**주석님의 유훈을 받들어 조국을 통일하시려는 건 **김정일**영도자님의 확고한 결심이며 불변의 의지입니다.

주석님께서는 나라가 분단된 첫날부터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통일을 이룩하시기 위해 온갖 노고와 심혈을 다바치셨으며 그 길에서 불멸의 자국을 남기셨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통일성업에 쌓으신 주석님의 업적을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해 주석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나날에 남기신 친필을 천연화강석에 새겨 판문점에 통일친필비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몇해전 몸소 판문점을 시찰하신 그 역사의 날에 그분께서는 친필비앞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주석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후대들에게 기어이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주석님의 유훈을 관철해서 조국을 기어이 통일하시려는 그분의 의지가 그대로 어려있다 하겠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의 불후의 고전적 명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와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에도 주석님의 유훈을 받들어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성취하시려는 그분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주석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하시고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든 반드시 이 헌장에 기초해서 주석님의 통일유훈을 기어이 관철할 확고한 통일의지를 천명하셨습니다. 가까운 앞날에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시려는 건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지니고 계시는 확고부동한 결심이시고 의지입니다.

민족분열의 역사가 반세기를 넘어선 오늘 조국통일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제입니다. 우리 민족은 단합된 힘으로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해서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야 합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가까운 앞날에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시려고 정력적인 활동을 벌이시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언제나 조국통일의 앞길에 난관과 장애들이 가로놓여 있다고 해서 조국통일을 먼 장래의 일로 생각하거나 대를 이어 계속해야할 문제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시며 그분께서는 아침에 깨어나도 통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저녁에 잠들때에도 통일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한다시며 조선은 하나로 합쳐져야 살고 둘로 갈라지면 살 수 없는 유기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조선은 하나다!≫ 이것이 자신의 확고한 의지라고 하시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영도하십니다. 정녕 그분께서는 통일을 최고의 애국으로 여기시고 온 겨레에게 통일조국을 선물하시려고 자신의 모든 걸 다바치고 계십니다.

김정일영도자님의 정력적인 통일애국영도와 확고한 통일의지로 해서 지난해 6월 민족분열사상 처음으로 역사적인 평양상봉이 마련되고 6.15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걸 핵으로 하는 6.15남북공동선언은 온 민족이 조국통일의 주인으로서 통일과정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민족자체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게 하는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가까운 앞날에 기어이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통일의 이정표입니다. 6.15공동선언이 채택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통일에 대한 자신감과 낙관을 갖고 통일운동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나갈수 있게 된것입니다.

김일성주석님의 유훈을 지켜 가까운 앞날에 기어이 조국통일을 이룩하시려는 **김정일**영도자님의 드팀없는 의지로해서 오늘 우리 겨레의 통일운동은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남북사이에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정치적대결이 현저히 완화되고 남북상급회담과 적십자회담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열의 고통을 덜고 통일을 가속시켜 나가는데서 중요한 쾌거들로서 흩어진 가족친척방문단의 교환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다른 한편 북으로 갈 것을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들이 송환되었습니다. 겨레의 통일열망이 화산처럼 분출하는 속에 올들어 금강산에서는 5.1절노동자통일대회와 6.15공동선언 한돌을 맞으며 민족통일대토론회, 남북농민통일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되어 우리 민족의 통일열기를 더해주었습니다.

오늘 민족의 통일운동사에서 획기적인 전변이 일어나는건 전적으로 주석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해서 조국통일을 기어이 성취하시려는 **김정일**영도자님의 확고한 통일의지의 빛나는 결실이라 하겠습니다.

한민전의 전위투사들은 **김정일**영도자님의 통일사상과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분기해 나섬으로써 가까운 앞날에 기어이 통일조국의 새아침을 반드시 안아와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특집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조국통일 3 대헌장기념탑 준공식 진행

조선중앙통신

평양의 관문인 통일거리 입구에 조국통일 3 대헌장기념탑이 웅장화려하고 특색 있게 건립되였다.

이 탑은 치마저고리차림의 두 녀인이 옷자락을 날리며 마주 달려 와 조선지도가 새겨 진 3대헌장 마크를 높이 받들어 올리는 민족적색채가 넘치는 독특한 형상으로 조국통일3대헌장의 기치 따라 통일의 문을 열어 나가려는 7천만겨레의 지향과 의지를 생동하게 보여 주고 있다.

탑신의 높이는 조국통일 3 대헌장을 상징하여 30메터, 너비는 6.15공동선언을 상징하여 6.15메터로 되여 있다.

조국통일3대헌장은 조국통일3대원칙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념탑준공식이 14일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인 김영남, 홍성남, 최태복, 양형섭, 최영림, 김중린, 김용순, 곽범기, 김윤혁 그리고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김영대위원장,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류미영위원장,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오익제부위원장, 평양시내 근로자들과 비전향장기수들, ≪한민전≫평양대표부 대표,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조선주재 각국 외교대표들과 무관단성원들, 국제기구대표들이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김영남위원장은 준공사에서 반세기이상에 걸친 민족분렬의 력사를 끝장내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겨레의 뜨거운 지향과 념원을 담아 일떠세운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은 심오한 사상적내용을 조형예술적으로 완벽하게 형상한 세계적인 대걸작이며 **김정일**시대와 더불어 길이 전해질 또 하나의 만년대계의 기념비적건축물이라고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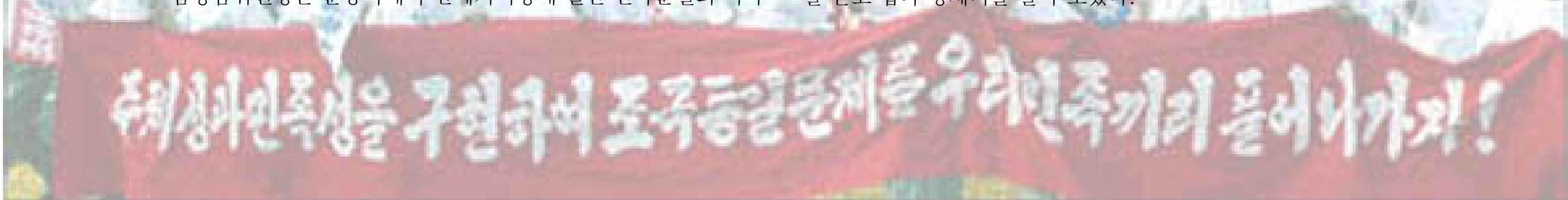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통일유훈을 실현하기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바쳐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건립할데 대한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그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여 오신데 대하여 지적하고 이 탑이 건립되게 된것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조국통일운동사에 쌓아올리신 또하나의 빛나는 업적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조국통일사상과 령도를 더 잘 받들어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김영남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 져도 조국통일 3 대헌장을 조국통일의 근본지침으로 확고히 틀어 쥐고 철저히 구현해 나감으로써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통일의 문을 기어이 열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이 기념탑앞에 드리운 붉은 천을 끊었다.

참가자들은 기념탑과 **김일성**주석의 조국통일 명제비에 대한 해설을 듣고 탑과 명제비를 돌아 보았다.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평양에서 성대히 개막



평양방송에 따르면 21세기를 맞이하여 7천만 겨레의 드높은 통일열망으로 3천리조국강토가 끓어번지고 있는 가운데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개막식이 15일 평양의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앞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개막식장은 이번 축전을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자주통일의 기치, 애국애족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억센 기상을 떨치는 통일대축전으로 빛내이며 통일조국을 하루빨리 안아 오려는 각계 대표들의 드높은 통일열의로 끝없이 설레이고 있었다.

개막식장상공에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이룩하자!≫, ≪조선은 하나다!≫,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이라는 글발을 드리운 대형기구들이 떠있었다.

개막식장에는 ≪조국통일3대헌장을 철저히 실현하자!≫,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자!≫,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북, 남, 해외의 3자연대를 강화하자!≫, ≪전민족적인 애국애족운동으로 삼천리강토위에 통일강성대국을 일떠 세우자!≫ 등의 구호판들과 조국통일주제의 대형선전화들이 세워져 있었으며 통일기들과 단체깃발들이 나부끼고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위원장,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용순비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대부위원장,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유미영위원장 등 이북의 당, 정권기관, 사회단체 책임간부들,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들, 평양시내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각계대표들과 해외동포들이 참가했다.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시작을 알리는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고 ≪아리랑≫노래선율이 흐르는 가운데 여성들이 흰색바탕에 우리 나라 지도가 그려진 대형 통일깃발을 들고 입장했다.

≪통일아 통일아≫주악이 울리는 가운데 통일깃발이 서서히 게양되었다.

순간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만세!≫, ≪통일된 조선민족 만세!≫의 구호소리가 터져 오르고 수천개의 고무풍선이 하늘 높이 날아 올랐다.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준비위원회 김영대위원장이 축하연설을 했다.

이어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박재로부의장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안경호부위원장이 연설했다.

개막식에서는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을 축하하여 여러 정당, 단체, 각계인사들이 많은 축전을 보내어 온데 관해 통보되었다.

이어 축전대표들이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주변에 기념식수를 했다.

개막식에서는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을 경축하는 평양시 예술인들의 공연이 있었다.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성공리에 폐막

평양방송에 따르면 온 겨레의 뜨거운 통일염원과 커다란 관심 속에 평양에서 개막되었던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이 지난 8월 16일 성과리에 폐막되었다.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폐막식이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앞에서 진행됐다.

폐막식장 상공에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 이룩하자!≫, ≪조선은 하나다!≫,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이라는 글발을 드리운 대형기구들이 떠있었다.

폐막식장에는 ≪조국통일3대헌장을 철저히 실현하자!≫,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자!≫,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북, 남, 해외의 3자연대를 강화하자!≫ 등의 구호판들과 조국통일주제의 선전화들이 세워져 있었다.

폐막식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위원장을 비롯한 이북의 당, 정권기관, 사회단체 책임일꾼들,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들, 평양시내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이 폐막식에 참가했다.

폐막식에는 또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각계대표들과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이 참가했다.

폐막식에는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염순길위원장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표단 양은식단장의 연설들이 있었다.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폐막이 선언되자 ≪민족대단결가≫가 주악되는 가운데 대형통일깃발이 내리워졌다.

7천만 겨레의 절절한 통일염원과 애국애족의 열의 속에 성대히 진행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은 주체적인 자주통일노선의 정당성과 거대한 활력을 힘있게 확증하고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민족대단결을 이룩해 가는 주체적 통일역량의 자랑스러운 모습과 민족자력으로 통일성업을 기어이 이룩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과시한 역사적인 사변으로서 성스러운 조국통일운동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환영 만찬장에 김영남, 김용순 참석

≪김용순위원장 참석은 남북대화 재개 시그널≫



≪2001 민족통일대축전≫ 참가단 환영만찬이 15일 늦은 밤과 16일 새벽에 걸쳐 만수대 예술극장과 양각도 호텔로 나뉘어 열렸다.

15일 저녁 10시 40분부터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열린 만찬장 헤드테이블에는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용순(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박재로(재일본조선인 대표단 단장 겸 총련 부의장), 안경호(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황봉국, 렴순길(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장), 박순희(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장), 승상섭(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장), 량만길(평양시 인민위원장), 강능수(문화상), 림민식, 곽동의(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의장), 남측에서는 김종수(2001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상임집행위원장) 등이 앉았다.

만찬사에서 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은 환영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의 일정에서 서로의 상봉과 회합, 명승지 참관 등 의의있는 날들을 보낼 것≫을 당부했다.

식사와 반주를 나누며 남.북.해외 대표단들 사이에는 자연스런 이야기가 오갔고 여기저기서 ≪조국통일≫ 건배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신창균옹은 김용순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위원장을 보고 ≪TV에서 많이 봤지만 처음 본다≫며 인사를 건네기도 했으며, ≪통일의 꽃≫ 임수경씨도 김영남상임위원장, 김용순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평양냉면 등 다양한 북한요리와 술이 제공된 만찬장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인 12시부터 만수대 예술단의 공연이 시작되어 인민배우 리영옥의 ≪내고향≫ 노래 등 노래와 음악이 이어져 만찬은 오늘(16일) 새벽 1시 15분까지 진행되었다.

서동만(상지대)교수는 ≪(북측의)국가수반과 대남사업 총책임자가 남북민간운동간의 만남에 참석했다는 것 자체가 남한 당국 못지않게 예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으며, ≪그동안 공식석상에 등장하지 않던 김용순위원장이 이번 행사를 통해 등장했다는 것은 남북대화 재개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대표단은 오늘 오전에 역사전시회 관람을 가질 계획이며, 같은 시간에 청년학생들은 별도의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옥류관에서 중식을 먹은 대표단은 오후 2시부터 부문별 모임을 갖고 오후 5시부터 연환공연을 가진 뒤 통일거리에서 폐막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통일뉴스 2001-08-16
김치관기자(ckkim@tongilnews.com)



감격의 평양방문

광복 56돌을 맞은 8월 15일 오후 2시,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인 평양으로 날아 온 민간 여객기 두 대가 순안공항에 바퀴를 내렸다. 기내에서는 박수가 터졌다.

남한에서 온 7대종단을 포함한 종교계, 민족화해협력협의회, 통일연대 대표 338명이 창으로 몰려 공항 울타리 넘어로 펼쳐진 옥수수 밭을 보면서 박수를 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외세에 의해 둘로 나뉘어져 서로 오갈 수 없던 조국이 하나로 연결된 흥분이었다. 이 흥분은 평양에 머물면서 딛고 다닌 땅에서 내내 이어졌다.

이번 평양방문은 6.15 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그 실천을 위한 남북한 민간인의 만남이었다. 이것은 남북한 고위급 대화통로가 경색된 상태에서 그 돌파구를 종교계와 민간단체들이 찾은 것이다.

지난 6월 금강산에서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대토론회는 흡족한 만남으로 끝이 났고, 이 흡족함은 자주 만나자는 약속으로 이루어졌다. 그 연장선상에서 사회각계각층의 민간 대표들로 구성된 분단이후 최대규모의 평양방문이었다.

지금 통일로 가는 길은 무엇인가? 정부든 민간인이든 자주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나서 대화하면 서로 이해하게 되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게 된다.

평양 거리에서 손을 흔드는 사람들을 보고, 청천강 줄기를 따라 호박넝쿨을 뒤집어 쓰고 가시덤불처럼 납작하게 엎디어 있는 농가를 보면서 통일을 위해 해야할 일이 너무 많구나 느꼈다. 이 일들은 정부만의 일이 아니라 민간인들이 함께 짊어져야 할 짐이다.

이번 평양방문의 의미는 이제까지 종교계와 사회단체들이 북한 접촉을 따로 따로 하여 왔던 것에서 진일보하여 민간단체의 통합적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민간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분야까지 확산되어 활성화된 것이다.

또 하나는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한민족의 역사적 운명에 대해 공동입장을 재확인함으로서 이는 통일로 가는 길에 주변의 정치적 환경이 잘못 되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공동대처하는 힘이 될 것이다.

여러 단체 중 하나로 참석한 원불교는 행정수반인 장응철교정원장과 조선불교도연맹 박태화위원장의 공식 만남을 가졌다.

박위원장은 그동안 원불교가 이북동포를 위해 전개하여 왔던 사업들을 확인하여 사의로 표하면서 ≪개문만복래(開門萬福來)≫라 했다 ≪문을 열으니 서로 만나게 되어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뜻일 것이다. 장응철교정원장은 상부상조로 조국통일을 이루어가자고 화답하였다.

또한, 북한의 불교신자들이 모인 가운데 남북한 불교와 원불교가 광법사에서 합동법회를 열었다. 원불교는 개성에 교당이 있었지만, 분단이후 연결고리가 끊어진 상태에서 이번 방문으로 다시 이을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다.

생존본능에서 상대가 해치려 하지 않을 때 이웃으로 느껴 안심을 하게 되고 필요한 것을 나누어줄 때 동류로 믿는다. 지금 우리는 통일로 가는 길을 열면서 이 평범한 진리를 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자.

50년 이상 단절된 역사를 잇는 일이 어찌 한 길만 있겠는가? 통일로 가야 한다는 의지가 확인되고, 절실하게 갈망하고 있으면, 다양한 통일에 대한 견해를 안고 갈 수 있을 것이다. 두 동강난 조국을 하나로 만들자면서 누구를 버리고 갈 수는 없지 않는가?

통일을 머릿속에서 만들어 입으로 이루려 하지말고 가슴에서 솟구치게 하여 손발로 이루어 가야겠다.

통일뉴스 2001-08-20
박세웅교무(원불교신문 사장)

북녘땅을 다시 밟은 ≪통일의 꽃≫

열렬한 환영을 받은 림수경씨

≪12년만에 평양에 오니 그때의 일들이 삼삼히 떠오릅니다. 백두산에서 판문점까지 행진한 나날, 단식투쟁을 벌린 나날, 따뜻이 맞아 준 동포들의 모습…≫

89년에 진행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을 찾은 ≪전대협≫ 대표 림수경학생(당시)이 12년만에 다시 이북땅을 밟았다.

축전참가자들은 그를 따뜻이 맞이하였다. 북과 남, 해외동포예술인들의 련환공연무대에 선 그에게 열렬한 박수갈채와 환성을 보냈으며 새 세기 청춘들의 통일련대무대에서는 그가 인기를 독점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그는 너무나도 잘 알려 지고 있다. 지금도 그는 ≪통일의 꽃≫으로 불리우고 있다.

12년전, 림수경씨는 제3국을 거쳐 평양을 방문하였다. 북녘동포들을 만나 판문점을 거쳐 남쪽땅을 밟은 순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체포되였다.

세월은 흘러 6.15공동선언의 발표가 새로운 정세국면을 열어 놓았다.

그는 합법적으로 당당히 평양땅을 밟고 이번 축전행사에 참가하였다. 더구나 남측에서 북측으로 가는 비행로는 제3국을 거치지 않는 직행로였다.

≪통일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우다 돌아 가신 선배들이 이 자리에 계셔야 했어요.≫

림수경씨는 련환공연무대에서 돌아 간 ≪선배≫들을 추모하며 문익환목사가 지은 시 ≪꿈을 비는 마음≫을 읊었다.

전자이온기구전문학교 김성철학생(33살)은 ≪이 축전마당에서 림수경을 다시 만나니 정말 감격적이였습니다. 이번에 남측에서 온 350여명의 대표들도 물론 모두 합법적으로 들어 왔던것이지요. 6.15북남공동선언발표이후 통일이 급속도로 다가 오고 있음을 절감해요. 우리 세대가 통일 위해 더 분발해야지요.≫라고 말하였다.

≪조선신보 01/ 8/20≫



남측 대표단, 만경대 생가 방문과 기념탑 구경



지난 16일로 민족공동행사를 마친 남측 추진본부 대표단 360여명은 17일 오후 2시부터 ≪대동강 - 만경대 고 김주석 생가 - 평양~남포간 10차 고속도로 - 동명왕릉 - 인민대학습당≫ 등을 둘러보았다.

지난 이틀동안의 공식행사와는 달리 이날 관람은 평양주변의 북측의 관례적인 관람 코스를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보는 자리였다.

1시간 30분 동안 유람선을 타고 대동강을 따라 내려온 대표단은 17일 오후 4시 30분경 만경대에 하차했다.

≪일만가지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을 가진 이곳에는 고 김주석의 증조부 김응우씨가 1862년 처음 터를 잡고 대대로 살아온 초가집이 있다.

360여명의 대표단은 일부가 안내원의 해설을 듣는가 하면 일부는 자유롭게 주변 경치를 감상하거나 뜨거운 햇빛을 피해 잠시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

안내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곳에서 고 김주석은 1912년 4월 15일 태어났다고 한다. ㄷ자 모양의 초가집에는 낡은 농기구와 가재도구, 그리고 고 김주석 일가의 초상화가 전시되어 있다. 특별히 사람들의 눈길을 끈 것은 일명 ≪오장독≫ 이라는 두세겹으로 일그러진 독항아리였다.

소설가 황석영씨는 ≪예전 북측 작가들 말에 의하면 이 독은 잘못 만든 독이라 팔지도 않았는데 가난했던 김 주석의 증조모가 장에 나가서 겨우 때를 써 사왔다고 들었다≫며 ≪당시 이 집안이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들었다≫고 소개했다.

그의 말에 보태어 북측 만경대 생가 안내원은 ≪이 독은 127년이나 된 독≫이라며 ≪혁명전통 집안의 삶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일정에 쫓겨 북측 안내원들은 남측 대표단을 서둘러 버스로 이동시켰고 대표단 중 일부는 주변 우물가에서 목을 축이거나 담소를 나눴다. 매우 비좁았던 생가에서 대표단은 기념사진을 삼삼오오 찍기도 했다.

이곳에서 ≪평양~남포간≫ 고속도로를 잠시 방문한 대표단은 곧바로 동명왕릉으로 향했다. 가는 도중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개폐막식 행사가 열렸던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탑≫을 스쳐갔다. 동명왕릉에서 30여분 정도 관람을 마친 대표단 일행은 저녁 7시가 넘어 다시 평양 시내 인민대학습당으로 향했다.

한편 그곳으로 가는 도중 다시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탑≫을 지나가게 되었다. 이 기념탑은 평양시내로 들어가는 통일거리 길목 위에 설치되어 있다. 7시 18분 경, 이곳을 통과하던 버스는 잠시 멈췄고 사람들은 남쪽에서 민족공동행사 개폐막식 내내 논란이 되었던 이 현장을 10여분 정도 직접 둘러보았다.

어제로 공식 행사가 끝난 이 기념탑 주변은 깨끗이 청소되어 있었고 북측 사람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남측 대표단은 기념 사진을 찍거나 기념탑을 살펴 본 후, 금새 버스를 타고 행선지인 인민대학습당으로 향했다.

기념탑을 둘러봤던 남측 일간지 기자 중 한 명은 ≪이렇게 개폐막식이 끝나고 와보니 그렇게 심각한 논란을 일으킬만한 특별한 내용이나 상징이 있지도 않다≫며 ≪남쪽에서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인 면도 없지 않다≫고 개인적 의견을 말하기도 했다.

이 기념탑은 폭이 61.5미터로 작년 6.15공동선언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어쩌면 남쪽에서 보수세력들에게 ≪북에 이용되고 있다≫는 여론의 호재로 상용될지도 모를 이날 만경대 생가 방문과 기념탑 구경은 이렇게 끝났다.

남측 대표단 그 어느 누구도 특별히 연방제 발언을 하지도 않았고 고 김주석에 대한 찬양을 한 행동도 없었다.

일본의 역사왜곡에 공동으로 규탄 성명을 내는 등 16일로 공동행사를 마친 대표단은 평양 주변의 명승지를 단지 ≪관광≫하면서 조금은 피곤해진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었을 뿐이다.

통일뉴스 2001-08-19
최경석기자(월간 ≪참여사회≫)

대축전 이틀째, 다양한 행사와 부문별 대화 가져

《2001 민족통일대축전》 평양행사에 참가 중인 남과 북 해외 대표단은 인민문화궁전에서 《일제의 만행 및 역사왜곡책동 공동사진전시회》를 관람하고 부문별 만남을 가졌으며 소속 종단별로 종교행사를 가졌다.

16일 오전 청년학생 통일 한마당을 가진데 이어 옥류관에서 《평양랭면》으로 점심식사를 마친 남북, 해외 대표단은 인민문화궁전에서 남측이 준비한 전시회를 관람하고 《일제의 만행 및 력사왜곡을 규탄하는 남,북,해외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행사를 실무적으로 준비한 김민철(민족문제 연구소 연구실장)씨는 이 행사는 통일시대 민족문화재단이 주최했으며, 일제의 만행과 이 만행을 은폐시키고 역사를 왜곡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담았다고 밝히고 공간이 좁아 준비한 전시물의 3분의 2밖에 전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동결의문에서는 《과거 범죄행위에 대하여 성실히 사죄하고 철저히 보상하며 역사왜곡 책동을 당장 중지하여야 할 것》등을 결의했다.

바로 부문별 대화에 들어간 남북, 해외 대표들은 《경제인》, 《여성》, 《노동》, 《농민》, 《민화협》, 《통일연대》, 《범민련》, 《문학》, 《민족종교》 등으로 나눠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 청년학생들은 오전에 행사를 가진 관계로 부문별 모임은 개최하지 않았다.

경제인들의 대화에서 남측 대표들은 노재봉대외경제정책연구원경영본부장이 북한경제정보센터 창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는가 하면 북에 지원하는 비료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는 남해화학 손선근대표는 원활한 비료 공급물량 파악 등을 위해 북측에 조사단 파견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운업북측민경련회장은 《상호 간에 실리가 있는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제안들을 위주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는 등 북측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각 부문별 모임은 아직 구체적인 안건의 성사보다는 상호 관심사에 대한 진지한 의견교류가 주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으며 농민 대표들은 즉석에서 노래와 춤으로 서로 어울리기도 했다.

한편 각 종단별로 해당 북측의 종교 기관에서 남북 공동의 종교 의식이 거행되었다.

불교의 경우 명진스님에 따르면 광법사에서 남측의 불교와 원불교 대표 30명과 해외 불자 50명, 북측 조선불교도연맹 소속 신도 300명 등이 함께 모여 공동법회를 갖고 불교도들이 앞장서서 6.15 공동선언을 이행할 것을 다짐했다고 한다.

부문별 대화에 이어 5시 40분부터는 봉화예술극장에서 문예공연이 열렸다. 남측의 이정렬가수가 첫 무대를 《내나라 내겨레》 등의 노래로 열었으며 이어 북측의 공연들도 이어졌다.

중간에 89년 방북하여 구속되었던《통일의 꽃》 임수경씨가 등장하여 고 문익환목사의 시《꿈을 비는 마음》을 낭독하여 장내를 숙연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날 문예공연에서는 독특한 무대장치들이 돋보였는데 피아노가 자연스럽게 이동하는가 하면 눈이 내리는 형상을 비춰주는 등 관람자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통일뉴스 2001-08-17
김치관기자(ckkim@tongilnews.com)

통일의 열정, 청년학생 통일 한마당

《2001 민족통일대축전》 평양행사 참가 이틀째인 남측 대표단은 평양에서의 둘째 날을 맞아 남북 해외 대표단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새 세기 청춘들의 통일연대무대》를 가졌다.

남측 대표단은 늦은 만찬을 갖고 평양에서의 첫밤을 보낸 뒤 16일 아침식사를 마치고 전체가 모인 가운데 이후의 일정에 대해 공유하



는 자리를 갖고 전원 청년학생 《통일연대무대》에 참석했다.

대표단은 내일(17일) 대동강 유람과 평양 견학 등을 진행하고 18,19일에는 묘향산과 백두산을 두 개조로 나누어 탐승할 예정이다.

청년중앙회관에서 오전 11시에 시작된 《통일연대무대》는 북측과 남측의 청년대표들의 인사로 시작되어 다양한 문화행사와 함께 진행되었다.

북측의 최일**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비서는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장으로 달려온 남과 해외의 청년학생대표들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인사하고 《무엇보다도 21세기 자주통일의 이정표인 6.15 공동선언의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가 되》자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 있고 온 겨레와 우리 청년학생들의 단결이 있는 한 우리 대에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말 것》이라고 말했다.

남측의 전상봉한청의장은 《애국의 열정에 피끓는 청년학생들이 앞장서서 6.15공동선언을 실천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총련대표로 나선 천승훈원광대총학생회장은 《예전에는 대여섯 번씩 비행기를 갈아타고 왔으나 이번에는 한번에 왔다》며 6.15 공동선언의 실천을 강조했다.

최명학김책공대총학생회장은 북측 청년학생대표의 결의발언문을 통해 《새 세기는 조선의 통일의 세기이며 그 주인은 우리 북과 남, 해외의 청년학생들》이라고 격정적으로 밝혔다.

《통일연대무대》에서는 《통일아리랑》을 시작으로 노래와 무용 등이 이어졌으며 전대협동우회 정청래부회장이 무대에 나와 임수경씨의 89년의 방북을 회상하며 임수경씨를 참석자들에게 소개했고 참석자들은 일제히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행사는 낮 12시 15분 주석단의 퇴장으로 마무리되었고 참석자들은 서로 헤어지기 아쉬워하며 자리를 정리했다.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남북의 장금화(**김일성**대학 지리학부 4학년)학생과 윤범필(경희대 NGO 대학원)학생은 서로 손을 꼭잡고 행사장을 나오기도 했다.

장금화학생은 ≪많은 일도 물론 있었지만 이번 청년학생들의 통일연대무대는 통일의 진로를 열어나가는 자리였다≫며 ≪서울 친구들을 만나 좋았고, 통일도 빨리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사람과의 만남이 신뢰를 쌓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며 만나는 사람도 준비가 더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오늘 행사장 한켠은 청년영웅도로 집단경쟁 우승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주로 북한의 어려운 시절 소위≪고난의 행군≫ 시절에 청년영웅도로를 내기 위해 겪었던 생활상의 어려움과 투지를 생생히 보여주는 내용들이었다.

이한열 어머니 평양의과대학 졸업장 받아

이한열열사의 어머니 배은심씨에게 평양의학대학 명예졸업장이 전달되었으나 배씨는 대학에 오래오래 보관해 달라고 부탁했다.

20일 오전 10시 40분경 87년 6월 민주화 항쟁 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이한열열사의 어머니 배은심씨는 평양의대 유원기학장이 전달한 이열사의 졸업장을 받고 눈시울을 붉혔다.

유학장은 이열사가 민주화운동에 열심이었고 시도 짓고 만화도 잘 그린 것으로 안다고 열사를 회고하고 장례식 행렬을 본 학생과 교원들이 전원회의를 열어 이 열사를 2학년 1반에 등록한 것을 결정했다고 알려줬다.

1반 학생들은 자기 출석부 첫 번째에 이한열학생 이름을 올려두고 같이 공부한다는 심정으로 공부해서 공부를 아주 잘 했다면서 이들의 졸업식장에서도 역시 맨 먼저 이 열사의 이름을 불렀고 의학부장이 대신 졸업장을 받았다고 전했다.

유학장은 그후 의학부에서 졸업장을 보관해 왔다가 오늘 전달하게 되었다며 졸업장을 전달했다.

배은심씨는 졸업장을 대신 받고 감사의 뜻을 표하고 ≪말로만 들었을 때는 그런 것이구나 했는데 평양에 왔으니 인사라도 드리고 가고 싶었다≫고 말했다.

배씨는 자식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다보면 아들의 뜻을 알게되기도 하고 아들의 뜻이 펴져 나가게 되기도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백두산에 가서도 나는 하나가 아니라 (아들과) 둘이 왔다는 생각이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하지만 90년에 연세대에서 졸업장을 수여받고 영원히 묻어둘 것을 하는 후회가 되었다면서 이 졸업증서도 평양의대에 오래오래 보관해 달라고 부탁했다.

졸업식 수여식장에는 평양의대 5학년 김경애학생 등 3명의 학생도 함께 했으며 옆방에서는 최승희열사의 아버지 박심배씨도 평양한덕수 경공업대학 부학장 김명철씨로부터 명예 졸업증서를 수여받았으며 역시 대학에 보관을 부탁했다.

한편 평양체류 6일째인 남측 대표단은 평양 시내 견학에 나섰고 유교 관련 대표들은 단군릉 견학에 나섰다.

서울로 떠나는 내일은 오전 10시에 고려호텔을 출발해 11시 평양 순안 공항에서 직항로를 이용해 비행기편으로 12시경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고 박승희씨의 아버지가 명예졸업장을 수여 받고 있다.

통일뉴스 2001-08-17
김치관기자(ckkim@tongilnews.com)

아쉬움을 남긴 평양에서의 마지막 밤

8월 20일 민족통일대축전 참가단은 평양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보냈다.

오전 10시 참가단이 찾은 곳은 주체사상탑. 북이 자랑하는 대형건축물 중의 하나이다. 평양시내 어디에서 보나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주체탑은 모두 70층으로 이루어졌다. 탄생 70돌을 기념하는 숫자다. 높이는 170미터.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탑이다. 탑은 모두 북에서 생산한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는데 건설에 사용된 대리석은 모두 2만 5천 5백 67개로 해설원의 설명에 의하면 ≪70돌을 맞은 김주석의 산 날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한다.

참가단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 전망대에 올랐다.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평양시내는 사회주의 계획도시의 전형을 보여주는 듯했다. 주체탑과 일직선 상에 놓인 인민대학습당이 눈앞에 펼쳐졌고, 대동강 줄기와 멀리 능라도 경기장, 유경호텔 등이 손에 잡힐 듯 들어왔다.

1990년 고위급회담 때 평양을 방문한 적 있는 민화협 이병웅상임의장은 ≪11년 새 외곽지역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외향적 모습은 많이 달라졌다. 하지만 북이 자랑하는 건물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다음 일정은 평양시 외곽인 강동군 대밝산 기슭에 위치한 단군릉. 평양에서 버스로 50분 남짓 걸려 도착했다. 대밝산 정상을 깎아 단군부부의 시신을 안치한 단군릉 역시 북이 자랑하는 대형 건축물 중 하나다. 1994년 7월 **김일성**주석의 유훈을 받들어 1998년 준공된 단군릉은 화강암 1994개로 만든 총 9제단의 능이다. 능입구에는 고대의 능을 상징하듯 선돌이 출입구를 지키고 주변에는 90톤의 무게를 지닌 돌범이 사방을 호위하고 4명의 아들과 8명의 문무대신을 상징하는 돌 구조물이 입구에 버티고 섰다.

안내원의 설명에 따르면 1993년 발견된 이 무덤은 당시 전자상자성공명연대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5011년전의 무덤으로 확인됐으며, 묘안으로 들어가면 아르곤 가스로 밀폐된 유리관 위에 다시 박달나무 관으로 쌓인 단군부부가 누워있다. 원형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대밝산 일대가 석회암 지대의 중성토양으로 보존이 용이한 지질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한편 민족종교관계자 등은 약식으로 단군릉 앞에서 천제를 올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안내원이 말했다.

≪매년 10월 3일 우리는 천제를 지냅니다. 단군은 우리 민족의 시조가 아닙니까? 그 시조에서 분열되어 갈라진 후손들이 하루빨리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비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북에서만 천제를 올렸는데 올해 10월 3일부터 남에서도 참여해 북과 남이 공동으로 통일천제를 올리면 어떨까요?≫

그 설명이 마음을 더욱 숙연하게 만들었다.

이날 점식식사는 통일거리에 위치한 평양 단고기집에서 이루어졌다. 유명한 평양 단고기를 시식하기 위해 늘어선 남측 참가단은 사뭇 가슴 설레는 눈치였다. 개갈비찜과 허벅다리찜, 그리고 남자들에게만 제공된 황구신, 마지막의 탕에 이르기까지 평양 단고기는 비린내 하나없이 입에 착착 감기는 느낌이었다. 북의 단고기는 당국 차원에서 적극 권장하는 요리. 탕과 수육 중심의 남측과 달리 요리방법도 다양했다. 참가단은 모처럼 여유로움을 즐기며 평양에서 맞은 마지막 더위를 달랬다.

대표단은 오후에 만경대소년학생궁전을 향했다. 어린이를 하늘처럼 여기는≪어린이의 천국≫ 북이 자랑스레 내세우는 시설이다. 소년학생궁전은 일종의 학생들의 과외활동 장소다.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학생들은 방과 후 이곳에서 음악, 미술, 체육 등 다양한 학습을 연마한다. 학생궁전 덕택에 북 청소년들의 1인 1기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남측 대표단이 소년학생궁전을 도착하자 소년단원 학생들이 소년단 특유의 경례를 붙인 뒤 대표단을 안내했다. 대표단은 가야금, 무용, 한국화, 태권도, 수영 등 다채롭게 진행되는 학습광경을 관람했다. 이윽고 대강당에서는 남측 대표단을 위한 소년학생궁전 단원들의 공연이 올려졌다. 독창, 중창, 독주, 합주, 무용 등 공연은 실로 놀라운 수준이었다. 연신 박수갈채를 보내는 남측 대표단에게 북의 안내원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사회는 아이들이 왕입니다. 모든 정책에서 우선 고려되는 것이 아이들의 교육문제입니다. 그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시절에도 소년학생궁전 학생들에게는 간식과 음료수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이야말로 통일된 조국을 번창시킬 미래의 주역 아니겠습니까?≫

북측 사회를 이해하는 코드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자라나는 새세대 아이들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에 둔다는 것이다. 그것에서 우리는 북측 사회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

마지막 날의 밤은 양각도호텔에서 진행된 만찬으로 장식됐다. 오후 8시에 시작한 이날 만찬은 첫날 북이 주최한 연회에 답하는 의미에서 남측이 주최한 것이다.

만찬에서 남측을 대표해 김동완 목사가 인사말을 했다.

≪6.15 선언 실천을 위해 민간이 손잡고 나서야 합니다. 남과 북 어느 반쪽의 이익이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어떠한 난관이 닥치더라도 6.15 선언 실천을 통해 평화통일을 앞당깁시다.≫

북의 답사는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했다.

≪이번에 평양에 340여 명이 방문해 호상 유익한 의견을 교환하고 평양의 곳곳을 참관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6.15 공동선언에 따라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시다. 사상, 제도의 차이를 넘어 서로의 단합을 실현합시다.≫

테이블마다 남과 북의 참가단들이 섞여 앉았다. 그들은 대표들의 인사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술잔을 들었다. ≪조국통일을 위하여!≫ 40도짜리 백두산들쭉술과 50도짜리 찹쌀술이 순식간에 동이 났다. 잔뜩 취기가 오른 참가단은 곳곳에서 어깨를 걸고 노래를 부르며, ≪조국통일만세!≫를 외쳤다.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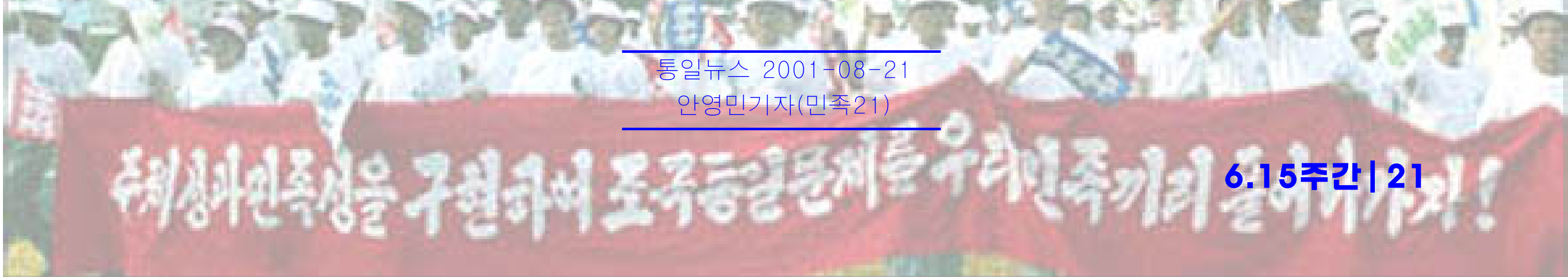
만찬은 밤 11시가 다 돼 끝이 났지만 술자리는 숙소인 고려호텔로 돌아와서도 이어졌다. 호텔 맥주집마다 가득 들어찬 남북의 손님들은 평양에서의 마지막 밤을 이대로 보낼 수 없다는 눈치였다. 첫날부터 숱한 논란과 진통이 이어졌지만 헤어지길 아쉬워하는 그들은 새벽까지 술잔을 부딪혔다.

한편 남북공동보도문을 준비해온 남북측 실무팀은 내년 8.15 행사를 서울과 평양에서 공동개최하고 북측 대표단을 서울로 보낸다는 내용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일정을 모두 마친 남측 대표단은 21일 오전 11시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해 12시에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도착과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행사 추진본부의 기자회견도 공동보도문 채택 여부에 따라 가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통일뉴스 2001-08-21
안영민기자(민족21)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북, 남, 해외 공동보도문

새 세기의 첫 광복절을 맞으며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이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평양에서 북과 남, 해외의 대표들과 각계인사들 수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진행되었다.

남측과 해외측 대표단은 8월 21일까지 평양에 체류하면서 북측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녀성, 경제인, 문화인 등 각계층과 상봉 및 련대모임을 가지고 여러 곳을 참관하였으며 공동행사들도 진행하였다.

민족의 깊은 관심과 기대속에 나라가 분렬된 후 처음으로 북과 남, 해외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행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은 6.15북남공동선언에 따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을 실현해 나가려는 겨레의 절절한 념원과 확고한 의지를 내외에 과시한 거족적인 통일행사였으며 민족통일운동사에 커다란 자욱을 남긴 자랑찬 민족대화합의 마당이었다.

북과 남, 해외의 대표들은 이번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을 전 민족적인 통일운동을 통해 계속 철저히 리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1. 북과 남 해외대표들은 온 겨레의 성원과 지지속에 채택된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을 새 세기 조국통일의 유일한 리정표요, 애국애족의 통일강령으로 재확인하고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6.15북남공동선언 실천에 적극 떨쳐 나서기로 하였다.

2. 북과 남, 해외 대표들은 6.15 북남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실현을 위해 외세의 간섭과 전쟁의 근원을 제거하며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데서 민간단체들이 적극 련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북과 남 해외대표들은 평양에서 진행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해 앞으로 8.15광복절 57돐에는 평양과 서울에서 공동행사를 개최하며 서울행사에 북측대표단이 참가하기로 하였다.

4. 북과 남 해외대표들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대단결을 실현하며 각계층의 련대, 련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급에서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함께 필요한 교류사업도 적극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이번 축전기간에 단체별, 계층별 상봉과 회합에서 토의하고 협의한 문제들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5. 북과 남 해외대표들은 이번 민족통일대축전기간에 민족공동행사로 진행된 일제의 만행 및 력사외곡책동을 폭로하는 북남공동사진전시회가 성과적을 진행된데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도 일제가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우리 민족에게 끼친 만고대죄를 폭로하고 사죄와 보상을 받아 내기 위한 여러가지 형식의 공동행사들을 계속하며 당면하여 독도령유권을 확고히 지켜 나가기 위한 민간급 단체들의 공동행동을 강화하며 이와 관련한 학계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주체 90(2001)년 8월 21일
평양

일제의 만행 및 력사외곡을 규탄하는 북, 남, 해외 공동결의문

2001년 광복절을 맞으며 북과 남, 해외의 대표들은 평양에서 일제의 만행 및 력사외곡책동공동사진전시회를 가지였다.

일제가 지난 40여년동안 조선을 강점하고 감행한 살륙과 략탈만행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인권에 대한 참을수 없는 유린이고 침략행위이다.

일본은 이에 대해 공식사죄하고 보상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미화하고 공공연히 력사외곡책동에 매달리고 있다.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북과 남, 해외의 대표들은 일본의 이러한 행위를 단호히 단죄규탄한다.

일제의 만행 및 력사외곡책동공동사진전시회에 참가한 북과 남, 해외의 대표들은 일본의 이러한 범죄행위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7천만 온 겨레의 확고한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북과 남, 해외는 일제가 조선에서 감행한 살륙과 략탈만행에 대해 끝까지 추궁하여 기어이 사죄와 보상을 받아 낼것이다.

2. 북과 남, 해외는 일제의 만행과 력사외곡책동의 엄중성과 파렴치성을 전면적으로 폭로하는 사업을 전 세계의 량심과 함께 적극 벌려 나갈것이다.

3. 북과 남, 해외는 일본의 재무장과 군국주의부활책동에 각성을 높이고 주시하며 공동으로 강하게 대응해 나갈것이다.

4. 일본당국은 우리 겨레의 치솟는 민족적분노를 똑바로 보고 과거범죄행위에 대하여 성실히 사죄하고 철저히 보상하며 력사외곡책동을 당장 중지하여야 할것이다.

5. 북과 남, 해외는 외세의 침략과 민족의 리익을 팔아 먹는 그 어떤 반민족적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견결히 지켜 나갈것이다.

일제의 만행 및 력사외곡책동공동사진전시회
주체90(2001)년 8월 16일
평 양



강정구교수 기자회견

≪만경대 방명록≫ 파문을 일으켰던 강정구(동국대 사회학과)교수는 김포공항에 도착해 자신의 심정을 밝힌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강정구교수의 기자회견 녹취전문이다.



≪생각한 것을 글로 정리했으니 그냥 읽겠습니다.
첫째는 사건경위에 대해서 애기하겠습니다.
16일날 대동강 유람 후에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 구경하던 중에 우연히 방명록 장소에 다달았습니다. 평소 습관대로 방명록을 쓰기 위해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때처럼 어느 장소를 방문하면 그 장소인 만경대와 또 우리가 북에 통일대축전을 하러 왔으니까, 통일대축전의 목적인 통일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를 고민했습니다. 잠시.
그러나 만경대 혁명열사 유자녀 학원이 즉시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학원의 특징인 민족정기의 수립이 통일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학원은 민족을 위해 희생되거나 헌신해 온 분들의 자녀를 특별교육시키는 학교로 1940년에 세워졌습니다.
민족정기를 더 높이 세운다면 통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통일일꾼이 많이 생기면 조국의 평화통일은 앞당겨 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야말로 만경대정신이고 이는 통일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순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만경대정신에 대해서 애기하겠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생각했던 만경대정신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민족을 위해 희생되거나 헌신한 사람을 기리고 그 자손들에까지 명예와 보상을 내림으로써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민족을 위해 헌신하도록 추동하여 민족정기를 세우는 정신이다, 이것이 만경대정신의 개념정의입니다.
북한에서는 만경대정신에 대한 개념 정의가 없고 제가 말씀드린 정의는 평소 학문적 분석 속에서 자리잡고 있었으나 명시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경대에 가서 이런 생각을 했고 이것을 정리한 것이 방금 말씀드린 만경대정신입니다.
본인의 진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코 **김일성**주석 가문이나 주체사상을 찬양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단지 순간적으로 나타난 발상을 방명록에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썼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적 발상은 북한 정권이 고난의 행군기간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분석한 이전의 본인의 학문적 분석이라는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곧 과거 본인의 학문적 분석이 순간적이고 직관적인 발상으로 연결되어 방명록에 표출되었던 것입니다.
언론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본인이 사용한 만경대정신이라는 개념에 대한 확인도 없이 멋대로 왜곡 과장하여 문제를 삼은 것은 올바른 언론의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이 사건으로 본인의 방명록 기재가 전화되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심대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차피 진통이라는 과정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죠. 아마 이 사건도 그 진통 과정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명록 기재라는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진통을 겪는 것은 민족을 위해서나 통일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통일뉴스 2001-08-21
김치관기자(chkim@tongilnews.com)

통일연대, 연세대에서 대표단 환영대회 열어



김포공항에서 연세대로 옮긴 통일연대 방북 대표단과 환영단 300여명은 오후 5시 30분경부터 노천극장에서 환영보고대회 및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종린범민련남측본부상임의장은 환영사에서 검찰이 대표단 16명을 연행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또한 대표단들에게 다녀온 경험을 가지고 빨리 분단을 허무는데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한충목전국연합집행위원장은 방북 보고를 통해 개막식, 부문별 행사, 백두산 묘향산 등 전체 일정을 보고한 뒤, 16명이 연행된 것과 관련해서 ≪연행된 사람들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잘 몰랐다. 추진본부 내에서 구체적인 애기를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정희(부산연합)상임의장은 연행과 관련한 규탄 성명서를 통해 ≪이번 평양행사는 일부 언론과 반통일세력의 흠집내기에도 불구하고 분단을 뛰어넘는 감동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연대 소속 회원들은 대회 직후 16명의 대표단이 연행되어 있는 국가정보원, 구로대공분실 등으로 항의방문을 하러 갔다.

통일뉴스 2001-08-21
송정미기자(jmsong@tongilnews.com)



공대위의 반미투쟁을 놓고

구국의 소리 8월 12-14일



지금 각계 민중들 속에선 대북강경정책으로 조국통일의 앞길에 인위적으로 난관을 조성하고 있는 미국을 반대하는 기운이 더욱 높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연단 이번 순서는 ≪공대위의 반미투쟁을 놓고≫ 윤정원씨 모셨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윤정원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발표이후 각계 민중속에서 통일열기가 한층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반미투쟁도 새로운 양상을 띠고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시간엔 미사일방어체제저지와 평화실현공동대책위원회, 공대위잖아요. 이 공대위의 최근 반미투쟁을 놓고 이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사회각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전개된 공대위의 투쟁상황부터 간추려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윤정원 : 이미 보도됐습니다만 각계 민중속에서 반미기운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대위를 비롯한 여러 재야시민단체들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저지를 위한 투쟁을 격렬하게 벌였습니다.

지난 7월 27일 상임공동대표 홍근수외 10인 공동대책위원회 성원들은 미국무장관 파월방한을 규탄해 나섰습니다. 이날 투쟁에 나선 공대위의 관계자 400여명은 성남 서울공항에서 파월방한반대 기자회견을 가졌고 오후엔 서울 종로 기독교청년회관앞거리에서 파월방한 규탄결의대회를 열고 ≪파월방한반대≫, ≪엠디반대≫ 등의 프랭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지요. 이어 그들은 용산미군기지앞에 모여 미사일방어저지와 용산미군기지반환촉구대회를 갖고 주한미군기지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공대위성원들과 대학생 등 700여명은 27일에 이어 28일에도 서울 용산 미군기지앞에서 집회를 갖고 미국이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 중단할 것과 당국이 미사일방어체제불참을 선언할 것을 요구했고 거리행진을 벌였습니다.
사회자 : 미국무장관의 방한을 반대해 나선건 이들뿐만이 아니죠. 전국연합도 성명을 내고 화해와 통일을 갈망하는 온 겨레의 반대를 무시하며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 강행하는 세계 제1의 깡패국가 미국무장관의 방한을 강력히 거부한다고 주장했고 전국연합은 또 미국무장관이 아무리 거짓으로 속셈을 감추어도 우리 국민과 온 겨레는 그가 세계평화를 파괴하고 우리 민중의 대결과 전쟁을 부추기는 죽음의 사절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수 있다며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찬 더러운 발길을 돌려 즉각 이땅을 떠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저지를 위한 공대위의 투쟁이 미국무장관방한을 계기로 해서만이 전개된게 아니잖아요.
윤정원 : 그렇습니다. 미국이 미사일요격시험폐기를 위해서 각지에서 전개됐는데 공대위의 경우만봐도 7월 13일 상임대표 문정현외 10인 대책위성원들이 주한미대사관옆에서 미사일요격시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지요. 회견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가 단기적으로 이북을 겨냥한 것이라고 폭로했고 14일엔 서울 용산 미8군기지앞에서 집회를 갖고 미국의 제4차 미사일요격시험을 규탄했습니다. 그들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미사일요격시험 즉각중단과 당국의 미사일방어불참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시위를 벌였죠.

오늘 국제사회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 반대배격하고 있고 또 각계 민중속에서 반미기운이 높아가고 있는데 공대위가 이같이 반미투쟁에 거연히 나선 것은 현실요청에 부응한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미사일방어체제반대, 주한미군철수를 비롯한 공대위가 들고 나온 구호만 봐도 잘알수가 있는거죠.



사회자 : 지금 부시미행정부는 우리 온 겨레와 세계 진보적 민중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받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구축에 열을 올리며 대북강경정책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무슨 미사일위협이니, 상용무기위협이니 하는 있지도 않는 북위협을 구실로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 추진하면서 이땅에 더많은 군장비를 끌어들이고 대규모전쟁연습을 벌여 한반도정세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6.15공동선언이후 좋게 발전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앞길을 가로막아 통일을 방해하고 이땅에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해가기 위한 계획으로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윤정원 : 미국이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하려는건 역사와 시대에 역행하는 범죄행위에요. 오늘이 어떤 때입니까. 세계가 자주와 평화의 물결따라 나가는 21세기가 아닙니까. 세계 그 어느 나라와 민족도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바라지 않고 있어요. 자기 나라와 민족이 부흥발전과 안정이 외세에 침해당하는 것을 더는 용납하지 않고 있어요. 민족의 존엄과 자치권을 귀중히 여기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부시행정부가 이 시대의 부응을 외면하고 주한미군유지와 대북강경정책에 매달리고 있는데 그건 한반도는 물론 아시아와 세계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파괴하게 될 것이고 특히 우리 민족의 통일앞길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게 될 것은 뻔합니다. 그러니 공대위를 비롯한 각계애국민중이 ****해서 반미투쟁에 나서고 있는거죠.

사회자 : 앞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21세기와 더불어 우리 민족은 오늘 자주통일의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는데요. 나라와 민족이 갈라진후 처음으로 마련된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은 통일을 열망하는 우리 민족의 앞길에 밝은 전망을 열어놨잖아요. 이제는 그 어떤 외국세력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자체의 힘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뛰어들 구실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미국의 침략과 간섭을 단호히 배격하고 주한미군을 무조건 철수시켜야 합니다. 오늘 공대위를 비롯한 각계에서 엠디반대, 미군기지철수 등의 구호를 들고 뜨거운 양상을 띠고 전개되고 있는 반미투쟁이 바로 6.15공동선언정신의 발현이라고 보는데요.

윤정원 : 그렇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이땅에서는 ****과 함께 최근 반미투쟁이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5.18광주항쟁을 통해서 민주화투쟁으로부터 방향전환의 자리매김을 했던 반미자주화투쟁이 6.15공동선언을 계기로 그 질적 변화와 성장을 가져오고 있다고 봐요. 우선 우리 민족속에 민족자주의식이 확고히 세워진 건 말할 것도 없고 이를 바탕으로 오늘의 투쟁은 지난날 청년학생을 비롯한 제한된 특정한 소수의 투쟁이 아니라 각계층을 망라하는 전민족적인 투쟁으로, 또 대학가와 **에 국한된 지역운동이 아니라 전국적인 운동으로 화했습니다.

시민운동의 경우만 봐도 얼마나 많은 반미운동단체들이 나왔어요. 불평등한행정협정개정국민행동, 매향리미군폭격장폐쇄범국민대책위, 미군기지우리땅찾기운동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 그 수를 헤아릴수 없을 정도죠. 또 투쟁내용으로보나 그 형식에서도 주한미군철수를 겨냥해서 비합법적인 고립분산투쟁이 아니라 합법적인 공간을 통한 조직적인 대중투쟁으로 전개되고 있는건 매우 주목되는 점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공대위의 최근 반미투쟁은 이를 웅변으로 보여준 거죠.

사회자 : 지난 4월 9일에 민주노총, 참여연대, 전국연합 등 40여개 시민단체들로 미사일방어체제저지와 평화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는데요. 그 발족식에선 미국의 미사일방어전략이 세계적인 군비경쟁을 촉발시킨다며 모처럼 평화정착의 기회를 맞은 한반도가 가장 큰 피해지가 될 것이라면서 이를 규탄을 했습니다. 그때 공대위의 발족에 대해 언론에선 한국에서 시민운동의 질적성장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고 평했잖아요. 이것만 봐도 최근 반미투쟁의 양상에 대해 짐작이 간다고 봅니다.

윤정원 : 그렇습니다. 시민운동은 그간 사회의 관심사로 되는 환경이라든가 여타의 문제에 대해 평가를 올려왔으나 군축, 평화 등 민감한 사안에 관해서는 다소 소홀했구요, 특히 반미투쟁의 조직화에선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40여개 단체가 적극 참여해서 반미투쟁조직을 발족시킨건 높이 평가돼야 할거구요 더욱이 발족이후에 공대위의 투쟁과정은 투쟁에 나선 각계 민중에게 매우 고무적인 힘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보세요. 공대위는 출범 첫날부터 기자회견, 항의문발표, 평화시위 등을 조직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대중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벌여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으로 해서 새로운 양상을 띠고 전개되고 있는 오늘의 반미투쟁을 이끌어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해야 할거죠. 때문에 오늘 공대위에 대한 각계의 기대가 또한 큰줄로 압니다.

사회자 :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저지와 평화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의 반미투쟁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공대위는 앞으로도 현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고 민족자주를 지향하는 민심을 대변해서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반미투쟁에서 역사의 소임을 다해나갈 거구요, 민중의 기대에 꼭 보답하리라고 믿으면서 오늘 애기 여기서 마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사회자 : ≪공대위의 반미투쟁을 놓고≫ 윤정원씨 모시고 애기드렸습니다.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에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확약을 했죠. 그런만큼 미국은 우리 민족내부문제에 간섭하지 말아야 하고 주한미군을 즉각 철수해야 할겁니다.

한나라당이 금강산관광사업을 방해하려고 책동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구국의 소리 8월 15일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한나라당 대변인은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미국이 금강산관광사업을 가로막고 있다는 이북의 주장이 금강산육로관광계획이 무산위기에 처해졌음을 시인하는 것이라느니 정부는 이번 반대를 계기로 남북관계를 냉정하게 계산하라느니 뭐니하고 떠들어댔습니다.

또한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금강산관광이 국민의 혈세를 탕진하는 것으로 된다느니, 이북에 지불하는 관광요금의 사용출처를 밝히라느니 뭐니하고 시비질하고 여당을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에 물꼬를 터놓은 금강산관광사업을 파탄시키고 남북관계를 원점으로 돌려세우려는 책동의 일환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각계민중은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의 명산이자 세계의 명산인 금강산에 가볼 것을 희망해 왔습니다. 이러한 희망은 이북과 현대가 합의해 금강산관광의 길을 연후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금강산은 관광뿐 아니라 통일의 금강산으로 됐습니다. 여기서는 지난시기 남북노동자 5.1절통일대회와 6.15공동선언발표1주년기념민족통일대토론회,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농민통일대회 등이 열렸습니다. 이같이 금강산은 관광지로써 뿐 아니라 통일잔치를 베푸는 한마당으로써 의미가 큰 것으로해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금강산을 가볼 것을 열렬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은 금강산으로 가는 통로를 차단해보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더러운 책동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강산관광문제를 가지고 여당을 공격해 앞으로 있을 대선에서 유리한 입지를 조성해보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북관계개선에 찬물을 끼얹으려는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이같은 책동은 금강산에 가보기를 희망하고 있는 각계민중을 더욱 격분시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패거리들은 금강산관광뿐 아니라 남북간의 교류협력 자체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6.15남북공동선언발표후 남북간에 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자 북에 너무 많이 퍼준다느니 북의 군사력을 강화해줄수 있다느니 뭐니하면서 앞장에 서서 시비질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나라당은 경의선철도연결과 개성으로 가는 도로공사가 북의 남침통로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경의선철도공사기공식에 아예 얼굴조차도 내밀지 않았습니다.

세상엔 야당들도 많지만 한나라당과 같이 자기 민족문제, 특히 통일문제를 가지고 시비질하거나 방해책동을 하는 그런 야당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반 사실은 한나라당이야말로 금강산관광사업****하는 반민주, 반통일집단이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계 민중은 한나라당과 이회창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북관계도 개선할수 없고 통일도 이룩할수 없다는걸 명심하고 한나라당 해체와 이회창을 퇴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가열차게 벌여야 합니다. 한나라당을 해체하고 이회창을 퇴진시켜야 ***하고 남북공동선언이 착실히 이행될수 있습니다. 그런만큼 각계 민중은 한나라당해체와 이회창을 퇴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이즈미일본총리가 일본국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과 관련해

구국의 소리 8월 14일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고이즈미일본총리는 15일 경찰의 삼엄한 경계속에 2차대전 A급전범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신사참배를 끝내 감행했습니다. 이것은 고이즈미일본총리의 야스쿠니신사참배를 반대한 우리 나라와 일본을 포함해 아시아나라들과 세계진보적인류에 대한 난폭한 도전이고 **입니다.

아시다시피 야스쿠니신사는 도조를 비롯해 2차대전전범자들의 위패를 보관해둔 사당으로써 이곳을 찾아 참배하는 것은 일본에서 매우 예민한 정치적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스쿠니신사참배가 과거일제의 대륙침략전쟁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되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 일본당국자들은 물론 집권층과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조심히 다뤄왔으며 참배하는 경우에도 개인자격의 명예를 걸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서 일본반동지배층은 야스쿠니신사참배를 일본의 **과 전통을 같이해 나가기 위한 집권정치인들의 본보기로 간주하면서 국회의원들은 물론 장차관들과 심지어 총리까지 공공연히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일본반동들이 야스쿠니신사를 **** 군국주의적 침략야망과 재침열기를 불어넣는 사상적 거점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예상이 가능한 사실입니다. 그들은 야스쿠니신사참배를 통해 일본국민들 특히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군국주의를 주입해 그들이 지난날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야망실현에 나서게 하려는겁니다. 또한 해외침략에 필요한 무력증강과 **유리한 *********. 최근 일본에서 군국주의열기가 **불고 있는 가운데 ****노골적으로 벌어지는 것과 궤를 같이해 패전일인 8.15에 즈음해 고이즈미총리가 내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야스쿠니신사참배를 감행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써 절대로 묵과할수 없는 겁니다.

원래 고이즈미는 총리로 당선된 때부터 8월 15일 패전일에 즈음한 신사참배를 공언해 세인들은 물론 일본국민들까지 비난하며 총리가 신사참배계획을 취소할 것을 거듭 요구해왔던 것입니다. 고이즈미총리가 신사참배를 감행한 전날에도 야스쿠니신사역 부근에서는 총리의 신사참배계획에 항의하는 한국의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회원들의 연좌농성이 있었고 13일 당일에도 고이즈미의 신사참배에 항의하는 일본시민단체들의 투쟁이 현지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총리는 그것을 다 물리치고 끝내 신사참배를 강행함으로써 군국주의망령을 되살리려는 그의 범죄적 의도와 정체를 세상에 더욱 낱낱이 드러내보인 것입니다.

최근 일본반동들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자위대의 무력을 우리 나라와 가까운 일본 남부지방으로 이동배치하고 있으며 무력증강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반동들의 우리 나라에 대한 재침야망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그들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그에 대처할 마음의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각계 우리 민중은 일본반동지배층에 대해서는 절대로 환상을 가지지 말고 그들과는 비타협적으로 투쟁해 침략의 마수를 반드시 꺾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일본반동들은 군국주의침략야망을 이뤄보려는 시대착오적인 망동을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일보 방상훈사장을 구속하다

방상훈 · 김병관 · 조희준씨 수감 / 김병건 · 이태수씨는 기각
시민사회단체 ≪언론개혁 전기마련≫환영



서울지검은 오늘(17일) 저녁 8시경 조선일보 방상훈사장, 동아일보 김병관전명예회장, 국민일보 조희준전회장 등 3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그러나, 동아일보 김병건전부사장, 대한매일 사업지원단 이태수전대표 등 2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지방법원 의해 구속이 확정된 방사장과 김전명예회장, 조전회장 등 3명은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 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반면, 영장이 기각된 김전부사장은 김전명예회장과 형제간이고 동아일보 자금의 유용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또 이전대표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탈세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기각 사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방사장은 지난 97년 54억원 상당의 주식 6만5천주를 아들에게 우회증여하는 등 증여세 등 62억원을 포탈하고 회사자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동아일보 김전명예회장도 고 김상만회장 소유의 회사주식 26만6526주를 두 아들에게 우회증여하는 등 증여세 42억원을 포탈하고 18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국민일보 조전회장은 인쇄 용역비 31억원을 누락하고, 현금 47억원을 우회 · 증여받는 등 25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3명에 대해서는 서울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법원이 김전부사장과 이전대표에 대해 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 ≪김전부사장의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탈세 액수가 많은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고, 형평성을 놓고 보았을 때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전대표의 경우 법원은 피의자 개인사업체로 보기 어렵고, 개인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보이는 데 대한매일 사업지원단은 대한매일로부터 도급을 받은 피의자 개인의 사업체이고, 그 이익은 피의자에게 귀속한다≫면서 ≪총체적으로 봤을 때 2명에 대한 영장의 기각사유는 납득하기 어렵고, 재심신청여부를 추후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녁 9시10분. 서울지검 로비로 조선일보 방상훈사장이 걸어나왔다. 그는 포토라인에 5초 가량, 건물 바깥 포토라인에 10초동안 머문 뒤 미리 대기해있던 서울 51더 4290 검정색 누비라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떠났다. 기자들이 방 사장 곁에 달라붙어 한두개 정도의 질문을 던졌지만 오전의 여유있던 모습과는 달리 상기된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걸어나갔다.

9시20분. 국민일보 조희준전회장이 로비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로비 포토라인에 3초동안 머물고 바깥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았다. 그는 서울 51더 4234 검정색 누비라를 타고 서울구치소를 떠났다.

9시31분. 동아일보 김병관전명예회장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포토라인을 그냥 통과해 서울 51더 4546 검정색 누비라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이들 3명의 구속자들은 오늘 오전 변호사들을 대동해 서울지검에 나왔으나 떠날 때에는 양쪽에 검찰 관계자들의 보호를 받으며 나갔다.

한편 9시 57분. 동아일보 김병건 전부사장이 서울지검을 떠났고, 10시 3분, 대한매일 사업지원단 이태수전대표가 대기하던 자신의 차량을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로써 지난 1월 김대중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 이어 2월 국세청이 23개 언론사 정기 세무조사 착수하면서 시작된 ≪세무조사 정국≫은 일단락됐다.

사주 구속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응

시민사회단체들은 일부 언론사주의 구속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권언유착의 고리를 끊고, 언론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특히 ≪그간 언론권력을 통해 특혜를 누려온 언론사주들에 단죄가 이뤄졌고 이를 통해 사주에 종속돼 사회적 공기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못했던 언론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면서 ≪정간법 개정 등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언론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또 언론사주 구속에 대해 ≪언론길들이기≫라면서 정쟁화하는 야당 및 일부 언론사의 태도에 대해 비판한 뒤 언론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키 위한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유보신문개혁국민행동본부장

≪일부 중앙일간지의 사주들이 구속되는 것은 우리 언론사에 있어서 아주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사태가 초래된 것은 언론사가 언론권력으로, 특히 기업활동에 있어서 법의 초월자로 군림해 온 것에 대한 필연적 결과다. 악취가 진동할 정도로 썩어들어가는 언론사주들의 탈법과 비리를 그냥 덮어둔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또 야당과 일부 언론들은 세무조사로 인해 국론이 분열됐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의견을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은 파시즘적이다.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다수 의견에 따라 정책으로 형성돼야 하는 데 국론분열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목소리를 죽이는 것 자체가 파시스트적인 발상이다. 우리는 언론을 보호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파스스트 언론을 보호할 이유는 없다. 이런 언론은 보호대상이 아니라 청산대상이다.≫

최민희민언련사무총장

≪당초 김대중대통령이 언론개혁에 대해 언급한 뒤 곧바로 세무조사에 들어가 정쟁화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따라서 언론개혁 본질에 대한 논의보다는 생산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세무조사 문제가 정쟁화하면서 우리가 그간 중시해왔던 법과 제도의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모든 논의의 핵심은 편집권 독립이다. 사주의 권한을 언론인에게 돌리자는 것이다. 사주는 이번 기회에 사회적 도덕성을 되찾아야 하고, 언론인들은 신문의 편파왜곡보도를 청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심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정간법 개정 등 신문개혁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신문개혁 국민행동은 9월5일 국회 앞에서 정간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또 앞으로는 조선일보 구독거부운동을 보다 체계화시키고 구체화시킬 예정이다.≫

김주언언개연사무총장

≪언론사 세무조사 정국은 언론개혁을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렸다. 이로인해 온 국민이 개혁의 인식을 공유한 것은 아주 긍정적인 일이다. 하지만 그간의 논쟁 과정에서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만을 내세워 시민단체들을 홍위병으로 매도하는 등 언론탄압쪽으로만 부각시키려는 일부 인사들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 한편으로는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자사이익을 대변하고, 사주를 보호하려는 언론의 보도태도로 인해 왜 언론이 개혁대상인가에 대해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본다.

언론사주 구속은 성역화되고 집단권력화된 언론의 금기를 깼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이에 그친다면 자칫 언론길들이기라는 일부의 의혹을 인정하는 꼴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언론사의 경영투명성 확보, 신문시장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 또 언론사주가 신문지면을 개인적 이익에 남용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편집권의 독립과 신문사 소유지배구조의 개선 등의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구성돼야 한다.≫

박원순참여연대사무처장

≪세무조사 정국의 최대 쟁점은 정치적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다. 실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사회의 강력한 권력이었던 언론사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언론은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다. 이로인해 권력과 언론의 긴장관계가 조성되고, 언론의 비판기능이 활성화됨으로써 권언유착도 없어질 것이다. 결국 언론사 세무조사는 한국사회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이번 세무조사는 일회적인 행사이어서는 안된다. 이를 계기로 언론이 새롭게 탄생해야 한다.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언론으로 거듭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하승수변호사

≪언론사주들이 구속된 것은 탈세수법과 규모 등으로 볼 때 법적으로 당연한 것이다. 놀라웠던 것은 94년 언론사들은 세무조사를 받고도 이같은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는 스스로 성역이라고 인정하지 않고서는 가능치 않은 일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개인의 비리다. 개인이 비리로 인해 구속되는 것이 언론자유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것은 오히려 언론사 내부의 사주종속의 심화 문제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언론자유가 신장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언론사 세무조사는 언론개혁의 본래 문제와는 다소 동떨어진 것이다. 사주비리에 대한 처벌이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언론 개혁은 언론이 정도를 걷게하는 것인데 이것은 법제도의 개혁 뿐만 아니라 독자인 시민들과 이를 계속 감시해야하는 시민단체들이 제몫을 할 때 가능한 일이다.≫

임삼진녹색연합사무처장

≪세금포탈과 불법증여에 대한 사법정의를 세우는 데 있어서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다. 언론사 세무조사를 언론탄압으로 등치시키는 것은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사주에 대한 불법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언론탄압으로 보는 논리적 모순을 불식시켜야 한다.

일부에서는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것이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했는 데 그러한 주장이야말로 국론을 양분하는 것이다.

이제 정치인들은 민생현안을 비롯한 산적된 사회적 과제들을 해결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또 언론인들은 스스로 정간법 개정, 무가지 시정 등 스스로 자정노력에 나서야 한다. 언론은 시민의 것이고 사회적 공기이다.≫

이병한/이종호 기자 han@ohmynews.com

평양행사를 둘러 싼 논란에 대한 통일연대의 입장

1. 우리는 평양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혼란을 지켜보면서 할 말이 많았지만 대표단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섣부른 판단이나 예단은 남북간의 신뢰나 남측내부의 단합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대표단이 돌아 올 때까지는 입장 표명을 유보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남측추진본부에서 통일연대와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성명을 발표하였기에 우리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8월 17일 발표된 추진본부의 성명은 통일연대의 입장과는 전혀 무관하다. 통일연대는 추진본부내 일부인사들이 통일연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 다 아는 것처럼 남측의 정부당국이 3대헌장기념탑 앞에서 하는 행사를 문제삼아 방북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해방이후 최초로 열리는 민족공동의 통일대축전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남측 당국의 이러한 조치는 편협하기 짝이 없는 반통일적인 행위로 규탄 받지 않을 수 없다. 3대헌장이라면 7.4남북공동성명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연방제 통일방안을 말하는 것으로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7.4남북공동성명은 두말할 것도 없고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남과 북이 체제와 이념의 차이를 서로 묻지 않고 민족의 이익을 앞세워 대단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제 통일방안도 마찬가지로 남과 북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한데 기초하여 하나의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는 방안을 담고 있다. 6.15공동선언에서 통일방안에 대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하였다. 그러하기 때문에 찬반을 떠나 연방제 통일방안이 과거처럼 불온시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제쳐놓고라도 3대헌장 기념탑 앞에서 축전을 한다고 해서 3대헌장에 대한 지지로 된다면 평양에서 행사를 하면 이북 사회주의에 대한 지지라도 된다는 말인가? 주체사상탑 앞에서 행사를 하면 주체사상에 대한 지지로 된단 말인가? ≪그렇게 따지면 우리측에서는 행사를 할 곳이 없을 것이다≫≪통일행사에 참석하는 것조차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6.15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갈 것이란 말인가?≫라고 되묻는 북측에게 무어라고 답할 것인가?

3. 남측 당국의 편협한 조치로 무산될 위기에 놓인 2001민족통일대축전은 북측이 남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3대헌장 기념탑에서 열리는 개폐막식은 우리측(북측) 행사로 하고 남측대표단은 지난해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식 때와 같은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 옴으로써 극적인 성사에 이르게 되었다. 남측 정부가 불허조치를 철회하고 방북을 허용한 것은 위의 북측 수정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이러는 가운데도 남측당국은 남측대표단에게 3대헌장 기념탑 행사에는 참가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였다. 3대헌장기념탑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각서는 3대헌장제막식 등 3대헌장 기념행사를 두고 말한 것이지 민족통일대축전 개폐막식(북측행사)에 참관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애당초 방북이 어떻게 성사될 수 있었겠는가? 더구나 북측은 이미 남측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하기 전에 3대헌장기념탑 제막식을 마쳤기 때문에 민족통일대축전 개폐막식에 참석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될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언론에서 마치 3대헌장기념탑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해 보라! 민족공동의 통일대축전을 위해 방북한 남측의 참가단이 북측 동포들이 2만명이나 기다리고 있는데 장소를 문제삼아 축전의 개폐막식에 참관형식으로라도 참석하지 않는다면 두고두고 역사의 웃음거리로 남지 않겠는가?

그러함에도 일부 반통일세력과 수구언론이 사소한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이번 행사의 의의를 훼손하려고 날뛰는 것에 대해 우리는 엄중히 경고하고 규탄하는 바이다. 더욱이 남측당국이 여기에 놀아나 사법처리 운운하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며 이성적으로 행동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순서로 따지자면 국가보안법부터 철폐하는 것이 마땅하다.

4. 해방이후 55년만에 민족공동행사로 열린 이번 2001민족통일대축전은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의지를 세계만방에 과시함으로써 외세와 반통일수구세력의 방해책동을 극복하고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특히 남북당국자간의 대화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건에서 민간차원에서 공동의 광복절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함으로써 이후 남북대화에 커다란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는 일부세력이 불순한 의도가 깔린 시비에도 불구하고 분단역사상 처음으로 전민족이 함께 한 2001민족통일대축전의 거대한 의의는 역사에 길이 빛날 것으로 확신한다.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사소한 문제를 들추어내어 흠집을 내기보다는 역사적인 민족공동의 통일대축전의 의의를 빛내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5. 우리는 이번 민족통일대축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측내 광범위한 통일세력과의 연대연합을 기초로 민족대단결운동을 더욱 힘차게 전개하여 반통일수구세력을 척결하고 6.15공동선언을 확고히 밀고 나갈 것이다.

2001년 8월 18일

6.15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대변인실

검찰, 공항서 대표단 16명 연행 강행

검찰은 8.15평양공동행사에서 물의를 빚었다고 판단하는 남측 대표단 인사를 출입대를 통과시키지 않고 연행하려 하고 있다.

연행 대상자는 16명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확인된 검찰의 연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김종수(대표단 단장), 변진흥(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조성우(민화협 집행위원장), 한충목(전국연합 집행위원장), 한상렬(통일연대), 강정구(동국대 교수), 천영세(민주노동당 사무총장), 권낙기(통일광장 공동대표), 이천재(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공동의장), 김규철(68, 전민특위 서울연합의장), 문재룡(64, 서울통일연대)씨 등이다.

이들 중 김종수, 변진흥, 한충목, 조성우, 한상렬씨 등은 국정원에서 나머지 11명은 검찰로 연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행대상자인 문재룡씨는 ≪615공동선언을 실천해서 조국을 통일하자고 남북 수뇌가 합의한 것이고 조국통일하자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으며, 김규철씨는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균(43, 민변)변호사는 ≪명백한 연행의도로 볼 수 있다. 적법한 체포영장 없이 이렇게 연행하는 것은 불법이다≫며 ≪도착 기자회견 후 적법절차를 밟기로 했는데 처음부터 격리 연행하는 것은 현행범도 아닌데 긴급체포영장도 밝지 않은 명백한 불법이다≫고 격앙했다.

통일뉴스 2001-08-21

김치관기자

민주노동당

한나라당의 ≪서울광란극≫

한나라당이 통일방안은 있기나 한가… ≪매카시의 후예≫짓을 그만 두라

한나라당이 평양에서 있었던 ≪2001 통일대축전≫참가자들에 대해 평양광란극을 벌였느니, 이적단체니 뭐니 하면서 연일 광분하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번 사태는 차라리 ≪한나라당의 서울광란극≫이라고 보는 것이 적당하다. 연방제 얘기만 나오면 친북이라고 매도하며 사법처리를 운운하고, 방명록 서명에 대해서도 자세한 경위도 듣지 않고 빨갱이 매도를 하며, 심지어 주한미군 철수주장도 용공으로 몰아붙이니 과연 ≪매카시의 후예≫답다.

한나라당에 단적으로 묻겠다. 만약 국내 남북관계전문가들에게 통일방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했을 때 연방제를 지지하거나, 연방제의 장점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온다면 이때는 어찌할 것인가. 연방제 지지자를 모두 솎아내 보안법으로 처벌하자고 주장할 것인가. 통일방안이라고는 오직 ≪승공통일, 흡수통일≫밖에 없는 한나라당이 연방제를 빌미로 색깔론을 펼치고 있으니 가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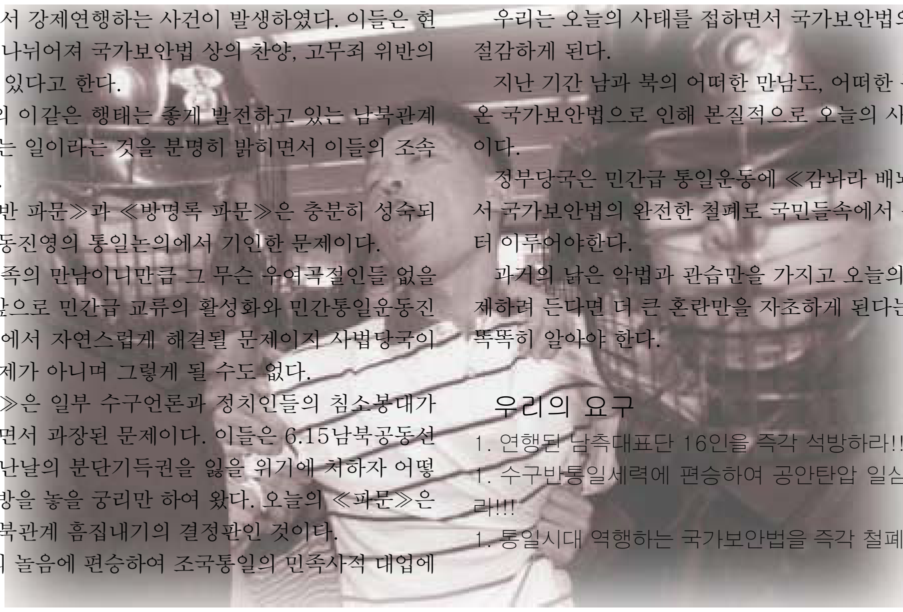
또한, 탈세비리 언론사주의 인권에는 그렇게 관심 많던 한나라당이 이번 통일진보인사들에 대해서는 왜 그리 반인권적 태도를 보이는가. 어떤 사안에 대해 비난하는 것과 그에 대해 인신구속,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정치적 반대파의 인권은 탄압으로 일관하는 박정희 시대의 전통이 지금 한나라당에도 유유히 흐르고 있다. 만약, 한나라당이 집권한다면 가장 먼저 유명무실해질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일 것이고, 가장 먼저 생길 것이 특권층인권위원회일 것이다.

사회주의 공세에 이어 연방제 · 친북공세까지 앞으로 한나라당의 색깔공세는 계속될 것이다. 반대가 정체성이 돼버린 한나라당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색깔공세가 아니라 제발 제대로 된 정책으로 승부하기 바란다. 아울러 정부당국 역시 이번 사태에 냉전의식으로 임해서는 안될 것임을 거듭 요구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당은 이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밝혀두는 바이다.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김종철
2001/08/21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민족통일대축전 남측대표단 16인을 즉각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지난 21일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에 참여하고 돌아오던 남측대표단 16명을 공항에서 강제연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들은 현재 국정원과 검찰에 나뉘어져 국가보안법 상의 찬양, 고무죄 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공안당국의 이같은 행태는 좋게 발전하고 있는 남북관계에 악영향만을 끼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들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한다.

이른바 ≪각서 위반 파문≫과 ≪방명록 파문≫은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민간통일운동진영의 통일논의에서 기인한 문제이다.

분단 56년만의 민족의 만남이니만큼 그 무슨 우여곡절인들 없을 수 있겠는가. 이는 앞으로 민간급 교류의 활성화와 민간통일운동진영의 활발한 토론속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이지 사법당국이 앞장서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며 그렇게 될 수도 없다.

또한 이번 ≪파문≫은 일부 수구언론과 정치인들의 침소봉대가 문제의 본질을 흐리면서 과장된 문제이다. 이들은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면서 지난날의 분단기득권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어떻게나 남북관계에 훼방을 놓을 궁리만 하여 왔다. 오늘의 ≪파문≫은 그들이 만들어낸 남북관계 흠집내기의 결정판인 것이다.

공안당국은 이들의 놀음에 편승하여 조국통일의 민족사적 대업에 역행하는 길로 나가서는 안된다.

우리는 오늘의 사태를 접하면서 국가보안법의 폐단성을 다시한번 절감하게 된다.

지난 기간 남과 북의 어떠한 만남도, 어떠한 통일논의도 금기시해 온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본질적으로 오늘의 사태가 빚어지게 된 것이다.

정부당국은 민간급 통일운동에 ≪감놔라 배놔라≫ 간섭하기에 앞서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철폐로 국민들속에서 통일논의의 활성화부터 이루어야한다.

과거의 낡은 악법과 관습만을 가지고 오늘의 발전하는 현실을 통제하려 든다면 더 큰 혼란만을 자초하게 된다는 사실을 정부당국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의 요구

1. 연행된 남측대표단 16인을 즉각 석방하라!!!
1. 수구반통일세력에 편승하여 공안탄압 일삼는 공안기구 해체하라!!!
1. 통일시대 역행하는 국가보안법을 즉각 철폐하라!!!

2001년 8월 22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강정구교수에 대한 사법처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만경대에서 방명록을 적고 있는 강정구 교수

만경대 방명록에 쓴 강정구교수의 글이 연일 대서특필되고 있다. 신문이나 방송매체 마다 무슨 죄인 다루듯 강교수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내보내고 있다.

검찰은 강정구교수가 만경대에서 자신의 단상을 짧은 문구로 방명록에 표현하는 것을 가지고 반공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며 사법처리 수순을 착착 밟아가고 있다.

어떤 경우도 사상의 자유는 보장되어야한다. 또한 국가의 근본을 흔들 정도의 국가기밀을 타국에 넘겨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도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강정구교수는 우리 사회의 진보적인 지식인이다. 진보적 지식인이 양심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억압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는 사회이다.

다양성이 부정되고 사상의 자유가 봉쇄되는 사회는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그런 사회는 극우 독재체제일 뿐이다.

우리 사회는 다 알다시피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분단 반세기 동안 사상의 자유를 부정해왔다.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법이다.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면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도 부정하게 된다. 국가보안법은 그런 까닭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다.

강정구교수가 자신이 표현한 만경대 정신이 김일성 주석 또는 북한을 찬양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민족정기를 기리는 의미에서 단상을 적었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는 마당에 강교수를 공항에서 국정원이 강제연행한 것은 인권유린 행위이다.

물론, 우리는 왜 강교수가 만경대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방명록에 쓴 글을 가지고 자신의 의도는 어떤 것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지 이해를 할 수 없다.

학자적 양심이건 실천적 지식인의 사명이건 간에 자신의 사상을 가지고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원리이다. 왜 마녀사냥식의 반공 매카시즘이라는 검열 장치를 통과해야만 한단 말인가? 강정구교수를 국가보안법 이름으로 사법처리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남북 화해의 시대가 눈앞에 펼쳐지고 국민의 민주주의 열망이 어느 때 보다도 높은 21세기 문턱에서 또 다시 독재체제로, 냉전체제로 되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된다.

김대중 정부는 현재의 자신의 처지가 곤란할지라도 정도를 걸어야 한다. 냉전 수구세력이 설친다고 해서 주눅이 들어 가지고 통일 진보세력을 탄압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된다.

불행히도 김대중 정권은 강제연행한 방북단 16명 가운데 10 여명을 사법처리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은 냉전 수구세력과 한통속이었단 말인가? 현정권과 민주당이 대선공약인 국가보안법 개폐에 왜 그렇게 소극적이었는지 이제 어렴풋이 짐작이 간다.

김대중 정권이 이른바 햇볕정책을 펴면서 마치 한반도에 화해의 봄꽃이 활짝 피어오르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햇볕정책이 허구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김대중 정권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게 된다.

김대중 정권은 조선일보 보도 (8.21일자)에 의하면 이번 방북단에 국정원 요원들을 침투시키는 정치사찰을 했다고 한다. 국민의 정부라고 자처하는 김대중 정부가 예전에 군사독재 못지 않은 공작정치를 하고 있다는 말이다.

북한과 통일 교류를 하면서 방북단이라는 이름으로 간첩에 해당하는 국정원 요원들을 북파했다면 외교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에 사과하고 안기부장을 파면시켜야 한다.

우리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를 지향한다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야한다.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는 사회가 온전히 발전할 수 없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은 남북화해와 통일의 결정적 걸림돌 구실을 한다. 민주발전을 위해서나 통일을 위해서나 국가보안법은 즉시 폐지되어야한다.



2001. 8. 22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이회창 규탄 1인시위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민족고대 반통일세력 단죄규탄 투쟁위원회는 이회창을 규탄하는 한나라당사앞 1인시위를 오늘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앞뒤에 ≪미군 영구주둔, MD지지 이회창은 부시가 먼저인가? 국민이 먼저인가?≫, ≪친미친일, 반북반공으로 민족화해 좀먹고 대통령병 유발하는 이회충 박멸하자!≫ 등의 구호를 들고 1인시위를 3시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전 많은 사람들의 가슴 설레임과 눈물로 맞이했던 남북 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 채택이 있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분단 반세기 동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회창과 같은 극우보수세력들은 어떻해서라도 남북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고 시비질하고 개혁을 가로막아 나서며 외세에 아부굴종하는 작태를 부려 민족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회창은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서가 발표되었을땐 ≪가봐야 별볼일 없다≫며 시비를 걸고 6.15남북공동선언도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는 내용을 미군이 철수될 수 있다면서 통일후에도 영구주둔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금강산관광은 퍼주기로 묘사하고, 경의선 복원을 남침을 용이하게 한다며 악선전하며 최근 언론사 세무조사 마저도 답방사전작업이라며 남북교류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외세에 아부굴종하는 작태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인류와 국민들이 반대하는 MD를 나서서 지지하고,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로 국민들이 분노하는 그때에도 한일관계가 손상되지 않기 위해 반일운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망발을 해대는 매국노입니다. 외세를 등에 엎고 대선에서 당선되려고 하는 그의 이같은 작태는 일제시대 친일검사보였던 아버지의 매국행각을 빼다 박은 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대사에서 가장 극악한 언론탄압으로 기록된 민족일보사장 조용수 사형판결을 한 판사가 다름아닌 이회창이였다는 것을 상기해볼 때 그가 최근 말하는 ≪언론탄압≫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잘 알게 해줍니다.

민족고대 반통일세력 단죄규탄투쟁위원회는 오늘 시작한 1인시위를 시작으로 앞으로 각종 인터넷 선전과, 대국민 홍보활동을 왕성하게 벌여내며 이회창은 정치무대에서 끌어내고, 역사의 심판을 받게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나갈 것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어가는 해
2001년 8월 21일
민족고대 반통일세력단죄규탄투쟁위원회

6.15반대하는 이회창 들어내자

고려대 박동호씨의 글 / 구국의 소리 8월 15-17일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통일의 이정표로 받아안고 남과 북, 해외 온 겨레가 민족자주통일이라는 대업을 이루고자 힘차게 나가고 있다. 한반도에 용암처럼 끓어번지는 역사상 유례없는 통일열기, 이는 곧 통일은 시간문제라는 것, 그 시간은 날을 따라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걸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런데 이 통일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고 발악하는 반역의 무리가 있다. 그 우두머리가 바로 한나라당의 이회창이다.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지 1년 남짓한 기간을 통해 우리 민중은 이회창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정체를 똑바로 알게 되었으며 그를 민족의 원수, 민중의 원수로 낙인찍었다. 왜 이회창은 민족의 원수로 민중의 버림을 받게 됐는가. 통일은 미룰수 없는 민족사적 과제이다. 조국통일에 우리 칠천만 겨레의 행복과 민족의 양양한 내일이 있다. 그런데 이회창은 민족자주통일로 향한 겨레의 거센 흐름에 정면으로 도전해 나서고 있다.

이회창은 6.15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악랄한 비방과 시비를 일삼고 있다. 그는 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을 놓고 기대할건 아무것도 없다느니 민중의 냉철한 이성을 흐리게 한다느니하면서 심보가 바르지 않는 소리를 마구했다. 문제는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회창은 공동선언이행을 위한 남북간 대화와 접촉, 교류를 시기상조론과 전략적 상호주의론과 같은 반통일론으로 가로막아 나서는가하면 주제넘게도 북의 변화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운운하며 외세와의 공조를 제창하고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과 반북강경압살책동에 적극 보조를 맞추었다. 이 반통일역적은 전방부대를 시찰하면서 그 무슨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흡수통일에 대해 미친듯이 고창했다.

이회창에게는 민족의 피도 없다. 그는 최근 강연원고라는데서 포용정책에 대해 역설하면서 현정부가 큰 손해를 보면서까지 북에 퍼주기만 한다고 했다. 이건 좋게 발전하는 남북의 협력관계를 어떻게 하나 깨보려는 고약한 심술이다. 동족끼리 서로 도와주는 것이 무엇이 나쁜가. 이회창의 안중에는 통일도 없고 동족도 없다. 오직 대결과 분열의 악습만이 있을 뿐이다.

이회창은 온 세계의 지탄과 배격을 받고 있는 국보법수호의 완고한 제창자이다. 그는 북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도발을 계속해 국가안보가 수시로 훼손되고 있다고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자면 국보법을 절대로 다쳐서는 안된다고 악을 쓰고 있다.

국보법은 철저히 남북대결과 민족분단을 조장하는 반통일악법이고 민중의 피를 말리우는 파쇼살인악법이다. 그런데도 그는 희세의 악법인 국보법수호를 떠들고 있으니 분명히 민족과 민중의 원쑤가 틀림이 없다.

우리 나라는 내외분열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으로해서 지금까지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미국이 기를 쓰고 훼방을 놀며 민족분단사를 지속시키고 있고 안으로는 이회창과 같은 역적의 무리들이 미국의 갓끈에 매달려 반공대결책동에 독을 쓰며 날뛰고 있으니 어떻게 통일이 되겠는가.

극악한 반통일분자 이회창의 존재는 민족의 수치이다. 민족의 악성종양, 민족과 민중의 원쑤 이회창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 모든 운동조직들과 투쟁단체들, 온 민중이 반이회창투쟁을 힘있게 벌이는 것이 필요하다. 당면해서 이회창역적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죄행을 낱낱이 폭로해 광범위한 반이회창 국민여론을 조성함으로써 이 자를 정계에서 지체없이 몰아내고 역사의 오물장에 매장해야 한다.

이회창은 어떤 자인가

김대룡 / 인터넷 구국전선 8월 21일자

민족반역자 이회창이 기회있을 적마다 ≪살아있는 양심≫이니, ≪움직이는 대쪽≫이니 하며 자화자찬하지만 그를 믿는 사람은 없다.

일제앞잡이의 집안에서 태어나 오늘까지 이어온 그의 행적을 간추려보아도 양심이니 대쪽이니 하는 말이 당치도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그의 애비 이홍규는 광복전 친일분자들만이 갈 수 있었던 도쿄제국대학을 나와 일제검찰기관에 복무하면서 반일애국투사들을 탄압하는데 적극 앞장섰다.

그 애비에 그 아들이라고 이회창은 1960년 법조계에 발을 들여놓자 마자 ≪민족일보≫ 조용수사장학살음모에 가담했다.

1961년 5.16박정희군사쿠데타 이후에는 이른바 ≪혁명재판소≫ 심판관이 되어 ≪법대로≫라는 명분으로 자주, 민주, 통일을 열망하는 수많은 애국인사, 청년학생들을 탄압처형하는데 앞장섰다.

그후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을 전전하면서 자기의 사람잡이기질을 발휘했다.

대통령이 되어 보려는 야심을 품고 김영삼의 겨드랑이에 바싹 붙어 한나라당총재가 된 후 그의 민족반역적 행태는 더욱 극대화됐다.

≪앞으로는 박수받을 일 뿐아니라 안팎으로 욕먹을 일도 찾아서 하겠다≫고 기염을 토한 그는 실지 한나라당사에서, 국회회의장에서, 거리에서 때와 장소 가림없이 못된 일을 찾아서 했다.

특히 지난해 4월 남북최고위급회담을 전후로 그 수위를 넘어섰다.

남북최고위급회담에 관한 남북합의문이 발표되자마자 그것을 선전용 캠페인이라느니, 크게 얻을 것이 없다느니 하며 회담의 의미를 깎아내리려고 모지름썼다.

남북최고위급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풀어나갈데 관한 공동선언이 발표되자 반정신나간 그는 ≪김대통령이 합의한 연합제는 그의 개인적 안에 불과하다≫느니, ≪이번 회담에서 통일을 언급한 것은 북한에 말려든 것≫이라느니, ≪어떤 수식어를 붙이든 연방제논의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느니 하며 입에서 구렁이가 나가는지 도깨비가 나가는지 모르고 헤둥거렸다.

6.15공동선언이야말로 민족의 통일로에 획기적 전환점을 가져온 역사적 선언임에 틀림없다.

그러기에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는 물론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공정한 여론도 이를 적극 지지환영한 것이다.

이를 외면하고 당리당략에만 매달려 심술을 부리는 이회창은 분명 한민족이기를 그만둔 인간쓰레기이다.

이회창은 이런 자이기에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민중의 투쟁도 체제전복을 위한 친북행위로, 생존권쟁취를 위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도 사회주의행위로 몰아붙이는 것이다.

그러기에 시대의 오물인 ≪보안법≫철폐를 극력 반대하면서 이북이 ≪주적≫이라는 망발만 줴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이 통일후에도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미국무기구매와 미사일방위전략실현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미국의 환심을 얻어 대통령벙거지를 써보려는 이회창의 친미사대적 작태라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몇가지 실례만으로도 이회창이 어떤 자인가를 평하기에는 충분하다.

한마디로 이회창은 한국의 암이요, 민족의 오물이다.

자주, 민주, 통일의 걸림돌이며 친미사대분자, 민족의 원쑤인 이회창을 그대로 두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각계각층 애국민중은 이회창을 역사의 쓰레기장에 영영 매장하기 위해 힘을 합쳐 나가야 한다.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정당한 투쟁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의 정당한 투쟁을 색깔로에 걸어 시비질하는 한나라당을 지탄하는 항의집회와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소속 회원 50여명은 한나라당 여의도당사에 가 전교조의 정당한 활동을 색깔론에 걸어 시비한 한나라당 의원들을 지탄하고 공개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언론개혁운동을 지지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을 ≪홍위병≫이라고 한데 대해 분격을 금치 못하면서 당사자는 물론 그 배후조종자인 이회창도 즉각 퇴진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을 포함한 언론개혁을 위한 종교인천인선언준비위원회 대표들도 한나라당사에 가서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그들은 여기에서 종교인천인선언을 ≪정부외곽단체≫로 매도한 한나라당의 행위에 분노한다고 하면서 이회창은 종교인과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16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신문개혁국민행동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나라당이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를 ≪관변단체≫로 매도하고 있다며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이회창퇴진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했습니다.

지금 각계 민중들속에서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항의집회와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선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반드시 이행하고 반통일분자들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으려는 국민의 의지와 관련됩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의 발표로 남과 북에는 통일의 이적표가 마련되었습니다. 남북대결을 조장하며 국민을 기만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누구나 통일에 대해 말하고 통일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해 하루빨리 통일이 될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극우반동보수세력은 우리 민중의 의로운 통일애국운동은 물론 민주민권을 위한 투쟁마저 북과 연결시켜 색깔론을 들고나오며 비열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 절대다수가 지지하는 언론사세무조사에 대해서까지 북과 연결시켜 비방중상하고 있어 더큰 분격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을 지탄하는 각계민중의 투쟁이 지극히 당연한 것은 또한 한나라당의 보수세력이 우리 민중의 민주민권을 위한 투쟁에 황당무계한 감투를 씌우고 인권을 마구 유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입니다. 인간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권리가 침해당할때 그것을 반대해나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이땅에서는 민주민권이 유린되고 행정권이 짓밟히고 있으며 우리 민중의 투쟁까지 파쇼경찰에 의해 무차별 탄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극우보수세력은 각계 민중의 정당한 투쟁을 심히 왜곡해 그들에 대한 탄압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민주민권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에 터무니없는 감투를 씌우지만 광주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한 군부독재자들의 광주학살에 대해서는 ≪평화적인 정권교체≫로 미화분식했습니다. 또 최근 파쇼경찰이 부평과 울산, 여의도에서 파업을 벌인 노동자들을 탄압할때 노동탄압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민각계에서는 민중을 등지고 있는 한나라당을 반대해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라당이 국민각계의 버림을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이회창이 총재의 자리를 차지하고 한나라당이 민족을 반역하고 국민을 배반하는 길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회창은 한나라당을 국민의 요구와 이익에 걸맞게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민의와 대세에 역행하는 길로만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회창의 시대착오적인 반북대결책동과 반통일책동, 사대매국책동을 우리 국민은 더이상 용납하지 않습니다. 6.15공동선언의 관철을 계기로 지난시기 반공보수활동을 벌이던 많은 사람들도 이제는 연공연북, 통일의 길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는데 이회창은 더욱더 매국배족의 길로만 치닫고 있으니 어찌 용서할수 있겠습니까.

이회창이 그대로 있는한 한나라당은 우리 국민의 더큰 항의와 지탄을 면할수 없습니다. 진실로 민주민중을 위해 살 것을 바라는 마음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비록 한나라당에 몸을 담고 있어도 국민의 저주와 배격을 받고 있는 추악한 반역아인 이회창과 단호히 결별하고 국민각계의 반이회창투쟁에 합세해야 할 것입니다.

각계민중은 남북대결책동과 반통일책동에 혈안이 된 이회창을 그대로 두고서는 꿈에도 소원인 통일을 이룰수 없고 민주민권도 쟁취할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이회창을 매장해버리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야 할 것입니다.



8.15를 보는 노농대중의 시각

구국의 소리 8월 13일, 14일 17일



새 세기 첫해 8.15를 보는 우리 노농대중의 시각은 과연 어떨까요. 김현규씨 모시고 얘기 나눠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8.15광복만세의 환호성이 강산을 뒤흔든 때로부터 벌써 5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그래서 광복절을 계기로 8.15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나, 이에 관해 돌이켜보고 참다운 광복절을 되찾을 마음가짐을 더욱 굳게 하는게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현규 : 56년전 8.15, 그때 일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 누구보다도 참을수 없는 민족적멸시와 고통을 강요당해온 우리 노동자, 농민들의 감격과 기쁨은 참으로 컸죠. 그러나 그건 미국의 한국강점으로 이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는데요. 돌이켜보면 1945년 8.15는 우리 민중에게 있어서 광복이 아니라 새로운 식민지예속의 시작이었고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민족분단비극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사회자 : 8.15와 함께 해방자의 탈을 쓰고 이땅을 불법강점한 미국은 군정통치를 실시하면서 자주독립과 통일을 요구하는 우리 민중의 의로운 진출을 일괄적으로 탄압했죠. 그리고 1948년 5월에는 망국적인 단선으로 이른바 대한민국을 조작했고 그를 통해 지금까지 이땅에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김현규 : 네, 옳은 말씀입니다. 미국이 이땅을 불법강점한 ******. 정말 미국은 우리 민족분단의 원흉이고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거죠. 오늘도 미국은 있지도 않은 북의 미사일위협을 걸고들며 대북강경정책을 선포하고 식민지 이땅에서 무력증강과 북침전쟁연습소동에 광분하면서 6.15공동선언이행의 앞길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우리 민중은 지난 56년간의 세월을 통해서 미국이야말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가로막는 최대의 방해자, 주되는 적임을 피부로 절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8.15이후 지난 56년간은 미국에 의해서 이땅의 민족경제가 파탄되고 경제의 식민지예속화가 심화되어서 우리 노동자, 농민들의 생존권과 민주민권이 무참히 유린되어온 나날이었죠.

김현규 : 그렇습니다. 미국은 8.15이후 원조라는 간판을 쓰고 체계적으로 한국의 경제를 저들에게 철저히 예속된 식민지***전락시켰습니다. 아이엠에프사태만 보더라도 미국이 이땅에서 저들의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는 한편 노동자의 피땀을 *** 위해서 조직적으로 몰아왔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도 노동자 죽이는 구조조정, 정리해고의 칼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생계수단을 잃은 수백만명의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삶과 죽음의 막바지 벼랑끝 계선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다 미국의 지배와 한국강점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회자 : 농민들 처지에서도 다를바가 없다고 보겠는데요.

김현규 : 그렇죠. 8.15와 함께 이땅을 강점한 미국은 적산이라는 명문밑에 수많은 ***을 저들의 ***에게 넘겼습니다. 또한 한국을 저들의 잉여농산물의 판매시장으로 전락시켰는데요. 미국은 원조의 미명하에 방대한 저들의 잉여농축산물 투입으로 한국의 농업을 체계적으로 말살시켰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우리 농축산물시장의 전면개방을 강요해오던 미국은 지난 94년에는 농업의 최후보루인 쌀시장마저 개방시킴으로써 한국의 농업을 완전히 황폐화시켰던 겁니다.

사회자 :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쌓여만가는 빚더미에 깔려서 ***고 있는건 미국의 한국강점과 농축산물시장완전개방책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수 있죠.

김현규 : 그렇죠. 때문에 노농대중은 이땅에서는 진정한 조국광복이 없었다면서 반미투쟁으로 진정한 조국광복을 이룩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자 : 침탈자, 통일의 방해자 미국을 이땅에 ****둘수 없다는게 우리 민중의 심정이죠.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지 않고서는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도 실현할수 없는거고 또 우리 노농대중의 비참한 오늘의 처지도 개선될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8.15를 보는 우리 노농대중의 시각이라고 하겠는데요. 우리 노농대중은 더욱 과감한 반미자주화투쟁으로 민족해방의 8.15, 민족통일의 8.15, 노농대중해방의 8.15를 하루빨리 안아와야 할것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장군님은 항상 바쁘시다

권태준 / 구국의 소리 8월 17-18일



정일봉 상봉에 우뢰가 터져
천둥소리 꾸르릉 남녘에 울려퍼진다
평양의 충격은 너무나 큰것이다
민심의 메아리는 너무너무 큰것이다

이타르따스통신사의 질문에
장군님주신 대답중의 하나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전에는
시간을 낭비할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민중이여 말해보자
장군님도 인간이실진데
불철주야 집무의 나날
겹쌓이는 피곤을 왜 모르시랴
육체의 한계인들 왜 없으시랴

정녕 장군님도 온 겨레의 어버이이시기전에
오붓한 한 가정의 아버지이실진데
여가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왜 즐기고싶지 않으시랴

허나 그 모든 욕망위에
시대의 사명을 얹으시고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신
우리의 김정일장군님

그래서 항상 시간이 없으시다
이남에서 온 동포라면 재야인도 언론인도 다 만나주시고
심지어 평범한 여가수의 독창회도 친정아버님의 심정으로 보아주시며
일초도 열 배로 쪼개 쓰신다, 시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신다

그래서 항상 바쁘시다
한반도 밀려드는 불구름을 막아 선군영도의 천리길, 만리길
새벽에는 동쪽농장에서 한낮에서 서쪽초소에서 깊은 밤에는 **의 공장으로
식사하실 짬마저 내지 못내시어 달리는 차안에서 주먹밥을 드신다

그길에 만나신 노동자의 젊은 아내
이제 출산할 아기이름 지어달라는 귀엣말도 허물없이 들어 주시며
그래, 그래, 고개를 끄덕이실 때
장군님의 쌓인 피로 안개처럼 사라진다

그길에 보아주신
노동자, 농민들의 들썩이는 울춤에
호탕하게 웃으시며 박수를 보내실제
장군님은 산악같은 용기를 얻으신다

아 - 나라마다 민중마다 수반들과 지도자들
주말이면 어김없이 골프장을 찾아 주말 휴식을 즐길 때
여름이면 해변가의 피서지에서 겨울이면 온천의 아늑한 별장에서
철따라 휴양의 권리를 즐길 때

오 - 김정일장군님 주신 대답
조국에 대한 헌신의 맹약으로 겨레사랑의 불변의 선언으로
우주 한끝까지 메아리쳐간다
북을 울리고 남을 울리고 해외를 울리고
인간의 거주지 지구촌 곳곳에 화끈한 감동의 열파를 몰아온다

정녕 한순간의 ***로 인류를 ****시는 분이시어라
한마디의 말씀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분이시어라
장군님은 그리도 바쁘신가
장군님은 그리도 시간이 없으신가

물어보자 시간이여 세파이여
우리 삶의 모든 시각을 합쳐
그분의 업무시간 대치할수 있다면
장군님께 순간이나마 여가시간을 드릴수 있으련만

가슴만 치지 말자
말로만 근심말자
자식들이 어버이를 닮듯이 우리도 장군님을 닮아
바쁘게 살자, 통일을 위해

6.15공동선언 통일이정표따라
남과 북, 해외동포 발걸음 맞춰
분초를 다투며 힘차게 달려
통일의 광장에 들어서는 날

아 - 그날에야 비로소 김정일장군님
간절한 우리 소원 받아들이시리라
지금껏 못내시던 여가시간을 내시어
만월에 푸르른 해변가를 거니시리라
***** 시원한 길을 통해
쌓이고 쌓인 피로 날려 버리시리라

2001민족통일대축전, 3대헌장기념탑에서 열려

≪더 너그럽게 더 폭넓게 연대하고 더 억세게 더 뜨겁게 손잡고 나아갑시다.≫

≪2001민족통일대축전≫이 평양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에서 남, 북, 해외동포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오후 7시 20분에 성대히 열렸다.

8.15광복절행사를 남, 북, 해외동포가 함께 치룬 것은 분단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남측 대표단은 통일연대 소속 인사들 위주로 일부만 ≪참관≫하는데 그쳐 온전한 남, 북, 해외동포의 공동행사로 치뤄지지는 못했다.

≪통일의 거리≫에서 오후 3시부터 기다려왔던 북측 환영단의 열렬한 환영속에 남측 대표단의 일부가 조국통일3대헌장탑 근처에 도착하여 행진함으로써 행사분위기는 달아올랐다.

남측 대표단과 해외동포 대표단들이 차례로 긴 거리를 행진했고 어린이, 여성, 주부 등 다양한 평양시민들이 연도를 메운 채 ≪조국통일≫등을 외치며 열렬히 환영했다.

북측에서는 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 김용순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위원장, 안경호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부위원장, 오익제, 여원구 등 주요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령성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부위원장의 개막선언에 이어 단일기게양의식으로 행사의 막이 올렸다.

김영대민화협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참가한 북과 남, 해외동포 여러분을 열렬히 축하합니다≫라고 인사했으며, 자주권은 민족의 생명이고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모스크바선언은 자주성의 의지를 대외에 선포한 자주선언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영대 위원장은 ≪민족의 자주권을 억압하는 미국의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일본의 군국화 야망을 짓부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2001민족통일대축전이 훌륭한 성과를 거둬 자주통일에 커다란 기여를 하기를 바랍니다≫고 말했다.

해외동포를 대표해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총련) 박재록부위원장이 연설했으며, 이어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안경호부위원장이 연설했다.

안경호부위원장은 ≪2001민족통일대축전은 6.15공동선언의 승리이며 민족의 승리, 애국의 승리≫라고 성격을 규정짓고, ≪온 민족이 굳게 단결하면 그것이 바로 통일≫이라며 ≪둘이 아닌 하나를 위해 분열이 아닌 통일을 위해 더 너그럽게 더 폭넓게 연대하고 더 억세게 더 뜨겁게 손잡고 나아갑시다≫고 말했다.

안경호부위원장 역시 나라의 자주권과 미군철수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주석단 참석자들은 어린 학생들과 함께 기념식수행사를 가진 뒤 문화공연에 참석했다.

어스름 녘에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탑 앞에서 시작된 문화공연은 부채춤을 시작으로 양강도춤, 가수 조청미씨의 노래 ≪통일의 문을 함께 열자≫, 농부춤 등으로 이어졌고 가야금병창도 있었다.

문화공연 마지막에는 남북 참가단이 함께 어울려 춤을 추고 대동놀이를 진행했다.

대회를 마친 후 김영대북측준비위위원장은 소감을 묻는 기자에게 ≪북, 남, 해외가 함께 새 세기 첫 광복절에 대축전을 진행하게 된 것은 우리 민족 통일운동사에 크게 아로새겨질 대경사입니다. 앞으로 여러 행사가 있는데 서로 손을 잡고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투쟁의 앞길을 개척해 나갑시다. 앞으로 난관도 있고 맞지 않은 것도 있지만 6.15공동선언을 이행해야 합니다. 너그럽게 이해하고 화합하면 안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통일뉴스 2001-08-16
김치관기자(ckkim@tongilnews.com)



주체 90, 8월 12일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의 이모씨는 이번 **김정일**영도자님의 러시아방문과 조러공동선언의 발표는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 발광하는 미국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반미투쟁에 나선 우리 민중에게 활력을 준 역사적 쾌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조러공동선언을 통해 세계적인 정의사회구현과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원칙과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가를 냉철하게 밝혀주셨다. 특히 주한미군철수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보장에 미룰수 없는 초미의 문제로 된다는 입장을 밝히셨다. 이는 우리 민중들로 하여금 주한미군에 대해 올바른 입장을 가지고 그 철수투쟁에 광범위하게 나서게 하고 있다.

나는 **김정일**영도자님을 통일의 영수로 높이 모시고 자주통일의 암인 주한미군의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에 더욱 과감히 나서겠다.≫

6.15남북공동선언실천을 위한 2001 민족공동행사청년학생추진위원회는 최근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규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녹색연합은 10일 용산미군기지의 기름오염사건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전면조사에 들어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녹색연합은 미군측이 과거의 논산기름오염사건의 경위와 피해정도를 모두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자도 처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총련소속 서총련 통일대행진단 50여명이 9일낮 12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앞에서 30여분간 반일시위를 벌였습니다.

한국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는 10일 일본 중의원회관앞 도로에서 고이즈미총리의 야스쿠니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각계에서 반통일분자 이회창을 제거하라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가고 있습니다.

재야통일운동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모씨는 이회창이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의 통일론을 계속 떠들고 있는 것은 반통일분자로써의 그의 정체를 명백히 보여준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누가 누구를 먹고 먹히우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건 지난 50여년간의 분단사가 잘 말해주고 있다. 6.15공동선언을 통해 남과 북이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것은 바로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 이회창은 기회있을 때마다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의 통일을 역설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자의 망상이 아닐수 없다. 말하자면 북을 흡수통합하는 방법으로 통일하겠다는 것인데 이건 말도 안되는 궤변이다. 북을 어째보겠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죽음을 자초하는 행위이다. 결국 이회창이 떠드는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의 통일론이란 통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땅에서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기 위한 전쟁론이다.

민족의 통일이 아니라 민족의 재난을 위해 혈안인 이회창은 절대로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 이회창과 같은 전쟁미치광이는 지체없이 제거해야한다.≫

노동계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주5일근무제가 도입되면 1년의 절반가량이 휴일이라며 반대하고 있는데 대해 반박했습니다.

충북대병원 파업사태가 60일을 넘기고 있는 가운데 병원측이 11일 파업참여노조원들을 상대로 직장폐쇄조치를 내렸습니다.

주한미군이 서울 지하철 녹사평역의 지하수오염과 관련해 용산기지내 22곳에 관정을 뚫어 분석한 결과 최소한 2곳 이상에서 휘발유성분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용산기지 시설공정대장은 7일 용산기지에서 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말하면서 과거 여러차례 용산지역 난방유저장탱크로부터 연료가 흘러나왔을 수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주한미군관계자가 녹사평역 기름오염사건과 관련해 기지내의 기름유출가능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군당국이 용산미군기지의 기름오염을 인정한 만큼 미군측은 사죄와 피해보상을 해야 할 겁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러시아공식방문과 관련해 러시아신문 ≪파트리어트≫책임주필이 9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러시아 이따르-따스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의 전문을 가이아나신문 흐르니클 지난 1일자와 방글라데시신문 라틴방글라 지난 6일자, 불가리아 소피야전략연구소에서 발행한 잡지 ****호가 게재했습니다.

주체 90, 8월 14일

서울의 한 통일운동가모임이 9일 **김정일**영도자님의 러시아방문과 관련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김정일**국방위원장 러시아방문 그 의미≫, ≪조러모스크바선언을 조명해본다≫ 등의 논제를 갖고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서울 외국어대학교의 김모교수가 경애하는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을 자주외교의 화신으로 높이 찬양했습니다.

재야단체들이 8.15광복절을 앞두고 양심수석방과 정치수배자의 특별사면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올해로 56주년을 광복절을 맞이한 한국인 원자폭탄피해자들의 고통스런 삶은 한일양국정부의 외면속에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당국은 15일 평양에서 열리는 8.15민족통일대축전에 민간단체의 참여를 사실상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미공군사격장 섬피해로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주민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승소판결을 받아낸데 이어서 이 지역주민 2,200여명이 1인당 2,000만원씩 모두 44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13일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민주노총이 전개하고 있는 조선일보안보기운동이 단위노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천주교와 불교, 개신교, 원불교 등 4개종단이 참여하고 있는 언론개혁을 위한 종교인천인선언준비위원회는 한나라당이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종교인단체를 정부외곽조직인것처럼 매도한데 대해 이회창총재의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언론개혁을 위한 종교인천인선언준비위원회는 1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한나라당이 지난달 25일 언론개혁촉구선언을 한 이위원회를 ≪정부외곽단체≫로 매도한데 대해 지난 1일 한나라당사를 항의방문해 공식사과와 이회창총재의 면담을 요구하자 종교인들의 입장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하고서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한나라당과 이회창총재의 반성과 사과를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개혁을 위한 종교인천인선언준비위원회는 언론개혁을 위한 종교인의 목소리는 국민의 뜻과 의지를 대변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처사는 국민을 우롱하고 비리족벌언론을 감싸려는 저급한 행위에 지나

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각계에서 반통일분자 이회창을 정치무대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려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한 인사는 이회창이 남북간의 협력과 지원에 대해 무모한 퍼주기니 국민혈세탕진이니하며 대북협력사업중단을 요구하고 나선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회창의 무분별한 망언은 6.15공동선언이행을 방해하려는 반민족적 책동이다.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기필코 막아보려는 부시정권에 굴종하는 이회창과 같은 극우세력들 때문에 지금 남북관계는 소강상태에 처해있다. 이런 자들을 그냥 방치해둔다면 남북대결과 긴장상태는 더욱 격화되고 전쟁접경에로까지 갈수 있다고 본다. 외세에 추종하며 민족내부에 불화의 씨를 뿌리는 이회창같은 자들은 마땅히 숙청해버려야한다.≫

이회창을 반대하는 기운은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높아가고 있는데 한나라당의 한 중진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는 국민의 지향에 도전하고 있는 이회창때문에 한나라당이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있다. 이회창은 민족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대권만을 노리며 독단과 전횡을 일삼고 있는 매우 위험한 인물이다. 만일 이회창이 대통령감투를 쓴다면 전쟁이 터지든가 무슨 변이 날 것이다. 6.15공동선언에 역행하는 이회창은 더이상 국민과 함께 살수 없는 인물이다.≫

주한미군이 용산기지내 기름오염실태를 축소시켰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지난 10일 용산기지내 22곳에 관정을 뚫어 조사한 결과 최소한 2곳 이상에서 휘발유성분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7월말 미국이 시추한 기지내 지휘소부근 관정 13곳중 9곳에서 기름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기름흔적이 발견된 관정수가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미군측이 서울시가 직접 채취한 시료를 분석해 확인한 곳만 오염사실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미군측의 시료분석자료를 토대로 나머지 7곳의 관정도 기름에 오염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미군측이 이를 공식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미군기지내 모든 관정에서의 시료체취 등을 요구했지만 번번히 묵살당했다고 말해 미군측이 기지내 오염실태를 축소, 은폐시키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기지내 기름오염조사가 미군 독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과거 미군측이 기름유출사고가 있을 때마다 적절히 처리했다고 말했지만 사실과 달랐던 적이 많았다는 점에서 이같은 의혹이 증폭된 것입니다.

환경단체는 미군측이 조사결과에 신뢰성을 얻으려면 한국과 공동조사를 실시하거나 적어도 모든 조사과정을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이즈미가 13일 오후 4시 30분 경찰의 삼엄한 경계속에 2차대전 A급전범자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신사참배를 강행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동상을 찾아 13일 2001년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할 재중조선인총연합회대표단, 재중조선경제인연합회대표단, 재중조선인청년연합회대표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했습니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 주석님의 동상을 찾아 13일 몽고정부대표단, 중국길림육문중학교친선대표단을 비롯한 외국사절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이북을 방문한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가족일행이 선물을 드렸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2001년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조국을 방문한 재중조선인총연합회 양영동의장은 13일 조선중앙통신사기자와 회견했습니다.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한 조청조선대학교위원회일군대표단과 조총련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13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인 비전향장기수 안영기, 신인수, 이두균, 유운형, 김영만씨들과 각각 상봉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이북 외무성대변인은 최근 일본당국이 이북대표단의 일본입국을 또다시 차단한 것과 관련해 13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주체 90, 8월 15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조국광복 56주년에 즈음해 러시아연방 푸틴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왔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조국광복 56주년에 즈음해 팔레스타인 국가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왔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한민전 중앙위원회는 8.15광복 56주년에 즈음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삼가 축하문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조국광복 56주년에 즈음해 조총련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축하문을 드렸습니다.

각계에서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러시아방문을 한반도의 통일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거대한 기여를 하신 역사적인 사변으로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의 최모교수가 지난 10일 기자들에게 **김정일**장군님은 투철한 통일의지와 지략을 지니신 위대한 영장이시라고 높이 찬양했습니다.

8.15광복절 56주년을 맞아 각계 민중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경모의 정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준공식이 14일 현지에서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동상을 찾아 14일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할 한반도통일연구회대표단과 미주동포전국협회대표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조국광복 56주년에 즈음해 이북주재 외교단이 축하편지를 드렸습니다.

여러 나라 인사들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에 의한 조국의 광복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역사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주체조선의 새기원을 열어놓은 위대한 사변이였다면서 주석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러시아방문을 축하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러시아협회 위원장, 러시아 평화와 오늘위원회 상무위원회, 러시아 ≪히미쩨흐≫회사 사장, 러시아 ≪스뜨로이마슈인또르그≫대외무역회사, 러시아 ≪제꼬스≫ 과학 및 생산상업회사 사장, 러시아 ≪웨쩨란≫신문사 책임주필 등 러시아 각계인사들이 **김정일**영도자님께 축전을 드렸습니다.

주체 90, 8월 16일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국광복 56주년에 즈음해 러시아연방 푸틴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온데 대해 그에게 답전을 보내셨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 2001년민족통일대축전 대표들이 15일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2001년민족통일대축전 개막식이 15일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앞에서 성대히 진행됐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실천을 위한 2001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한강근처 금성무대에서 한총련소속 학생 등 2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1민족통일대축전행사를 가졌습니다.

8.15광복절을 맞으며 각계에서 일본총리의 야스쿠니신사참배와 역사교과서왜곡을 규탄하는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역사적인 러시아연방공식방문을 축하해 19일 도르트문드에서 재독동포협력회성원들이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주체 90, 8월 17일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중국공산당 장쩌민총서기의 탄생 75돌에 즈음해 그에게 축전을 보내셨습니다.

서울 모신문사 기자 정모씨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러시아방문과 모스크바선언을 국제적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온 겨레의 뜨거운 통일염원과 커다란 관심속에 평양에서 개막되었던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이 16일 성공리에 폐막되었습니다.

범민련의장단 협의회가 16일 평양에 있는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습니다.

남과 북의 노동자대표들이 1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상봉했습니다.

남북농민대표들의 상봉모임이 1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습니다.

새 세기 청춘들의 통일연대무대가 16일 청년중앙회관 다기능홀에서 남과 북, 해외청년학생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남북여성통일연단이 1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습니다.

남과 북 종교인들이 16일 인민문화궁전과 천도교청우당청사, 대성산광법사, 장충성당, 봉수교회에서 상봉했습니다.

이북의 민족화해협의회 성원들과 이남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성원들과의 좌담이 1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북 민족경제협력련합회성원들과 한국경제인들의 상봉이 1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있었습니다.

남과 북, 해외예술인들과 동포들의 연환공연이 16일 봉화예술극장에서 진행됐습니다.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준비위원회 김영대위원장이 1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대표들을 만나 동포애의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민주노동당과 전국연합을 비롯한 여러 단체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8.15광복절에 즈음해 서울시내 곳곳에서 반미집회가 진행됐습니다.
통일연대는 14일 6.15공동선언의 실현을 방해하는 미국의 행위를 규탄해 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종묘공원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통일연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과의 대화를 거부한채 한반도에 불안을 조장하는 미사일방어망을 강행하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개정국민행동 등 3개단체들은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갖고 용산미군기지에서의 기름유출행위를 규탄하고 미군기지의 전면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한총련 소속 대학생 100여명은 집회참가에 앞서 주한미군철수 등을 요구하며 미대사관을 향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6일 일부 언론사주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와 관련해 엄정한 사법처리와 비리사주의 경영일선퇴진 그리고 언론개혁의 제도화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러시아연방공식방문을 축하해 그분께 회사, 단체들과 각계의 인사들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주체 90, 8월 18일

평양방송에 따르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공동보도가 발표됐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러시아연방을 떠나시면서 러시아연방푸틴대통령에게 감사전문을 보내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2001년민족통일대축전 남측대표단이 17일 평양시내 여러곳을 참관했습니다.

광복절인 8월 15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고이즈미의 야스쿠니신사참배에 항의하는 국내네티즌들이 산케이신문 등 일본의 극우언론 및 단체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대규모 사이버시위를 전개했습니다.

평양에서 진행된 2001년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남측대표단의 인사들이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에서 열린 개막행사에 참가한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 등 반통일세력들이 복작소동을 일으키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구소련의 일제전범재판 기록에서 일본군의 생체실험만행자료가 발견돼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동선최고위원이 한나라당 이회창총재를 친일주구의 후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안동선최고위원은 16일 청주 국정홍보대회에서 친일파는 3대에 걸쳐 부귀영화를 누리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3대에 걸쳐 죽을 고생을 한다면서 친일주구의 후손인 이회창씨가 부끄러워서 광복절행사에 참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안동선최고위원은 또 남북이산가족들이 상봉할때 이회창만 울지 않고 버티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당혹한 이회창은 측각을 곤두세우고 민주당이 사과하지 않으면 영수회담을 할수 없다느니 뭐니하며 반발해나섰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조국광복 56돌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3돌에 즈음해 페루 차차포야스주 이사회가 명예상장과 메달을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러시아 이따르-따스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의 전문을 불가리아신문 제마 6일자가 게재했습니다.